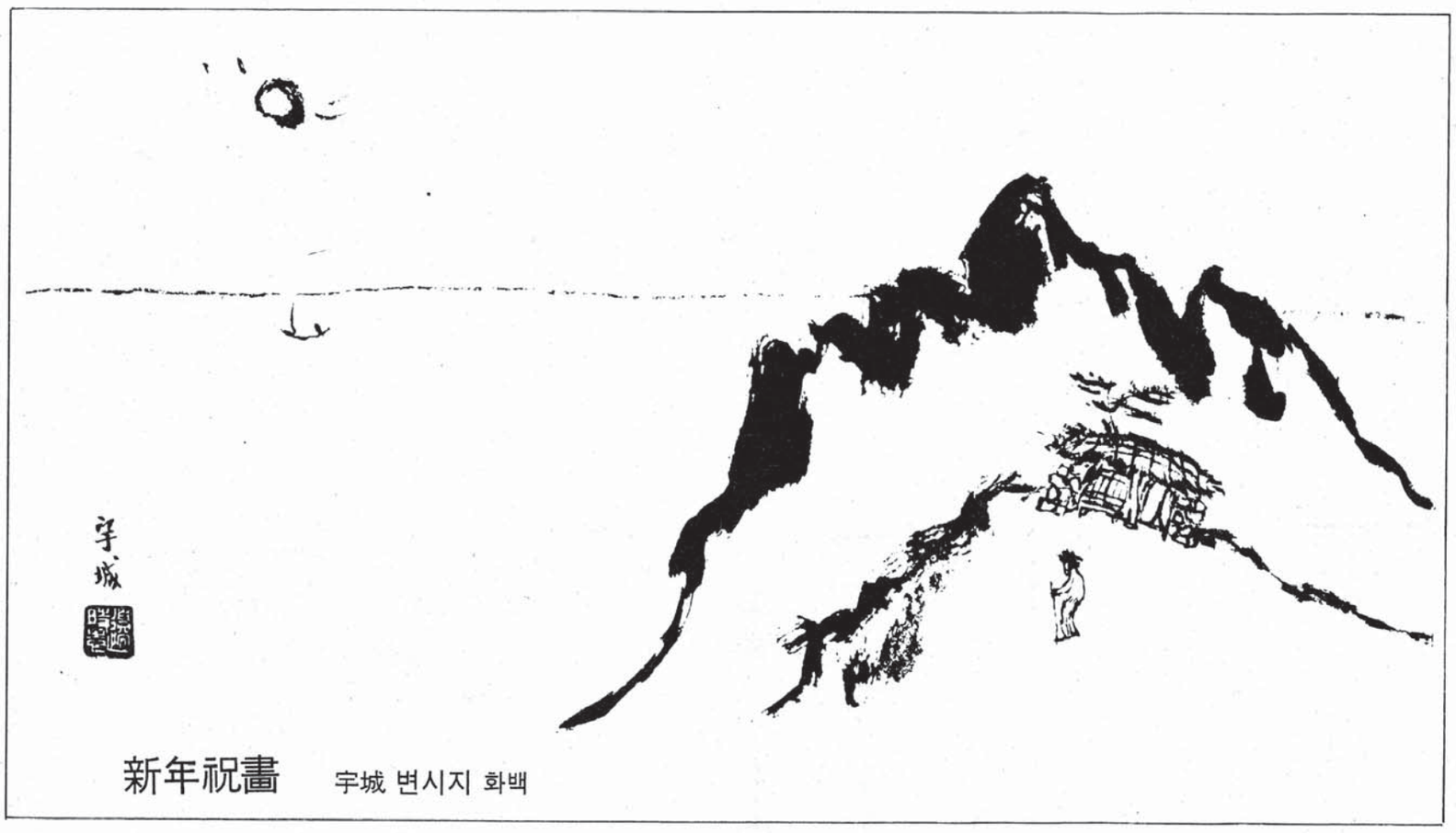
眞理 正義
自我 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金瀅玉 주 간 鄭大然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任尚繁
발 행 소 : 제주대학교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 번지
전화 : (직) 54 - 2278 · 2279
인 쇄 : 한 라 일 보 사

제436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 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2년 1월1일 수요일



新年祝畵 宇城 변시지 화백

新·年·祝·詩

새날의 祈禱

梁重海 詩人 사범대교수

창문을 열자
저 멀리서부터 조심스레 열리어 오는
찬란한 동쪽 하늘。

분홍 빛 구름에 받히어
둥둥둥 솟아 오르는
1992년의 눈부신 태양。

아라벌의 칠천 젊은 얼굴 마다
삼천리 칠천만의 가슴 가슴 마다
희망과 결의의 새 아침이 왔다。

일찍이 어느 세대가 누려 보지 못한
자유와 진리의 영광스런 빛이
이제사 빗발치듯 쏟아지려는가。

뒤를 돌아다 보면
펼쳐진 들판이나 솟은 산 봉우리는
아직도 눈으로 덮여 있지만,

이젠 누구도 속을 이 없는
굳은 약속의
새 해, 새 날, 새 아침。

눈에 덮인 들판도 산 봉우리도
솟아 오르는 아침 햇빛을 받고
은 빛으로 빛나고 있나니

1992년의 이 새 날, 새 아침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소원을 빌자。

어느 음흉한 놈이
우리의 젊음에 불을 질러
다시는 우리를 거리로 끌어내지 말기를。

화염병을 들고 쫓겨 다니다가
쏟아 붓는 최루탄에
눈이 붓도록 울지 않아도 되기를。

항시 시원한 바람만 불고
탐구의 열기만이 넘쳐 있을
우리의 아라벌이기를 기원하자。

대학의 본질을 새롭게 구현시켜 나가야

신 년 사

총장 金瀅玉

제대가족 여러분, 199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대학교 개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니 의의가 각별한 해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가지 구상과 포부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상과 포부가 실천적 기능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이념을 따르고 대학의 본질을 더욱 참신하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의 본질을 추구하는데는 그 중핵으로써 학문에의 의지와 학문적 자유를 구현하는 자치가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학문에의 의지는 교수와 학생을 서로 결속시키고 대학의 존재이유를 정립하는 강력한 힘이 되니 이것이 결여됐을 때 대학은 그 본질을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에 대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때, 그리고 기본 소집단의 자치, 나아가서는 대학공동체의 자치로 구성원 상호간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지적으로 성숙된 분위기에서 진전시켜 나가야 자치가 바람직스럽게 됩니다.

우리대학교가 학문을 추구하고자 하는 보다 더 강한 의지와 지적으로 성숙된 자치기능을 근간으로 해서 대학의 본질을 새롭게 실현시킬때, 개교 40주년을 맞는 금년은 새로운 발전의 해로 대학 발전사적 의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교수 여러분, 부족한 연구 여건과 교육현실에서도 의연히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산업구조의 개혁, 고도 정보화사회의 전개, 국제화시대로의 진전등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이제까지와 같이 모든 대학이 획일적으로 행해오던 교육방법을 대학마다 특성있게 개혁해 나가야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는 대학이 주체적 판단과 책임아래 스스로 개발한 이념에 의해서 교육방법과 체제를 확립시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역사의 요청을 예리하게 감지하여 사회진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적극적·창조적인 인간성을 갖도록 인간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 바탕위에서 성숙한 지식추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대학은 학문연구 이전에 인간의 혼란과 갈등의 현장으로 돼버릴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접촉과 대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다각적인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지만 제도 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어야할 것이지만 교과과정외의 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인성도야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학생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며 대화의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성의 바탕없이 학문성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학행정에 전념하고 계신 행정직 여러분, 여러분의 직무수행에 제도상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행정은 해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니 관행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합리성과 형평의 원리에 따라 대학구성원들의 요청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수준높은 봉사정신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대학발전의 관건은 대학행정의 질과 자세에도 있음을 재인식하여 새해의 새 각오로 혁신적인 행정을 펴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대학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방법에 있어서 사회에 대하여 수범적이고 선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 판단과 비판을 통하여 가장 정의롭고, 선하고, 진실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학인의 학문하는 자세인 동시에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더 나은 지식과 더 나은 비판과 행동을 통해서 더 나은 삶과 현실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들 대학인의 근본 목표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학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방법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와 토론이 창조를 낳고 신뢰의 바탕을 이룹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모교발전에 협력과 성원을 다 하여주신 제대동문 여러분과 학부형 여러분께 새해인사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대가족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축복받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우가 있습니다 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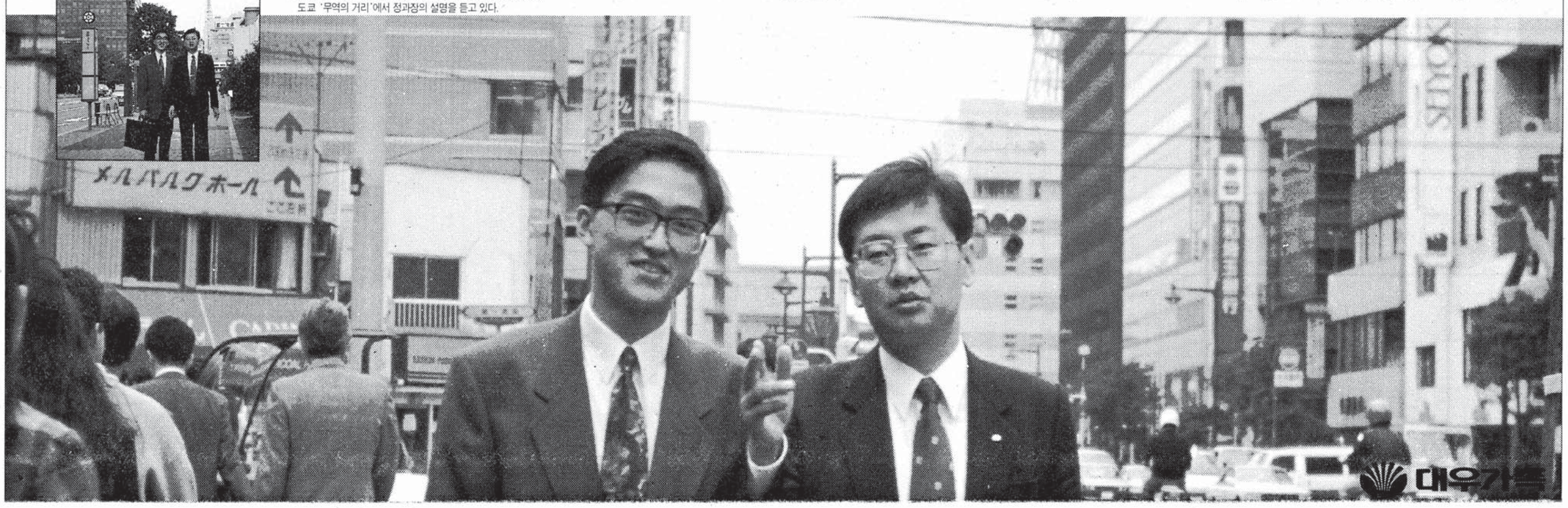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을 키워가는 뜻은…"

"선배님, 반갑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선배님 활약상은
서울에서도 익히 들었었지만 막상 와 보니 정말 굉장하네요.
신입사원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낼 만큼 바삐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중심부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참, 금년 인턴사원으로 대우에 입사했다지.
진심으로 축하하네.
그래,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대우인이 된 소감이 어떤가."
"실습기간 동안 선적업무를 맡았었는데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더군요.
일에 대한 정열과 희생의 가치관이 왜 필요한가를 피부로 많이
느끼기도 하구요. 역시 대우에 입사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일하다보면 더욱 그렇지.
더구나 일본같은 나라와 경쟁하는데는 대우 특유의
창조와 도전정신 없이는 힘들어.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한 수출을 넘어 삼각무역, 현지투자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당당히 국제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세계 64개국 84개 해외지사에서 선배님같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을 생각을 하면 세계 속의 대우가 아니라 세계가 곧 대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뛰면서 앞으로 선배님 못지않은
국제 세일즈맨이 되고 말겁니다."
"그래, 자네와 같은 활기찬 후배사원을 만나게 돼서 마음 든든하네.
우리 함께 국제화의 길을 넓혀 보자구."

오늘도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을 키워나가는 국제화의 주역들,
그리고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 뒤로 일본 경제의 상징인 국제무역센터와 도쿄타워가 보인다.
▼ 대우쪄팬 철강팀 정병국 과장과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이영범군.
도쿄 '무역의 거리'에서 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社說

임신년 새해를 맞으며

임신년 새해가 밝았다. 항상 그러하지만 새해의 밝음은 주기적 자연현상의 하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듯한 새해 설계를 꾸며보기도 하고 그 새해 설계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보기도 한다. 새해는 우리학교로서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해이다. 사람으로 치면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는 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40주년이라는 시점은, 지난 세월에 이루어 놓은 일들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점검해보고 반성해 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먼저 학교의 구성원쪽으로 시선을 돌려 물음을 던져보자. 지난 일년동안 교수들은 교수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각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천착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는가. 새로운 이론을 개발해내려는 의욕은 가져보았는가. 열과 성을 다해 강의했으며 보다 차원높은 사고와 인격으로 학생들의 진지한 대화 상대가 되어 왔는가. 물론 어떠한 일이든 완전해지기란 지난한 일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학생들도 각자의 입장에 맞추어 심각하게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연구활동은 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치열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분야에 매달려 교수에 못지 않은 수준의 연구결과를 내놓아 보려는 패기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보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교수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학생들이라고 사회의 변화에 무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관심을 가지되 그것이 개인의 전체생활을 지배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의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그러한 식의 자문자답은 필요한 것 같다. 학교라는 곳의 자유롭고 느슨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사안일에 빠져 본 적은 없는가. 행정 제일주의만을 신봉하면서 모든 일을 행정적 기준에만 맞추어 판단한 일은 없었던가. 대학은 교수·학생·행정직원의 평균율에 의해 움직여질 때 가장 건전한 모습을 유지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행정직원들의 판단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교수로서의 소임을 다한다면, 진지한 모습의 대학생이 된다면, 학교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우리 대학은 발전하는 대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은 저절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구성원들의 집합체로서의 대학당국이 그러한 가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란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항을 주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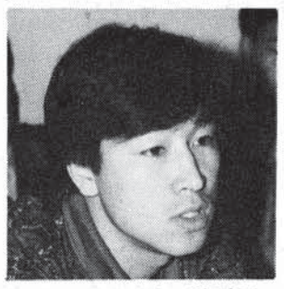
첫째, 대학당국은 교수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강의시간 경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강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 할 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충분한 연구 시간이다. 그런데도 우리 학교의 내규에는 학과 교수들의 평균 강의 시간이 15시간을 넘을 경우에 한해 시간강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내규를 그대로 두면 시간강사 채용시에 행정적 기준이 되어 교수들을 억압하는 실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적절한 수준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대학당국은 각종 장학혜택을 확대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높은 학점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제도는 물론 의의가 있지만 훌륭한 작품을 써서 권위있는 문학상을 받은 경우, 훌륭한 논문으로 현상공모에 당선한 경우, 권위있는 일간지의 신춘문예 현상공모에 당선한 경우등 개인 역량의 탁월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대학의 명예를 높였다면, 이런 경우에 장학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조금도 지나친게 아니다. 거창한 발전계획도 실천되지 못하고 계획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주장은 실천가능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본다.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임신년 새해는 개교 40년이 되는 해이다. 개교 40주년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대학인으로서의 분명한 자긍심을 소유하는 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그래서 발견된 그 이유를 극복하거나 제거하는 데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할 때이다.

□ 청년 아라인에게 띄우는 신년 메시지



'91년 총학생회장 위성곤

청년 아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1년 한 해 아라인의 생활, 학습투쟁의 숨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한 민족 제주대학교 제7대 통일단결 총학생회장 위성곤입니다.

힘겨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한 "특별법의 저지"의 함성이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며 막을 내린 교정에서, 유난히도 매섭게 불어닥치는 겨울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여러분께 해 맺음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분임토의에 기초한 총회로, 간부의 혁신으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히 근거한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으로 분열과 분리를 극복하고 통일 단결을 실현하자! 제주도 개발 특별법제정 저지 투쟁과 자주 민주 통일의 총체적 투쟁을 전개하여 승리를 선포하자! 하며 여러분에게 약속하며 나섰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평가의 자리에 섰습니다.

'91년은 청년아라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질까? 그 최선봉에 선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 한시도 쉴틈없이 닥쳐오는 일상사업, 투쟁사안들 속에서 '그릇된 정책이나, 학우를 믿지 못한 적이 있지는 않았을까?'하는 평가를 스스로 해 봅니다.

학생회를 처음 맡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학우를 믿고 신뢰하자"즉,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학우들이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과방이나 잔디밭등 여러곳에서 학우들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배를 받으며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학우들이 학생회와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회는 간부가 조금만 더 혁신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면, 학우들이 학생회에 대한 조그마한 애정과 믿음을 가진다면, 학우가 주인되는 학생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 봅니다.

'91년 학생회 사업속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고, 분통터지는 일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10초만에 날치기 통과된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이후 2천여명이 넘는 학우들의 자발적 참여!

6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발이 닳도록 뛰고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다 쓰러지고 70명이 넘는 교수, 신부, 목사님 등 10만이나 되는 도민들의 단결!

"특별법 저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분신하신 양용찬 열사!

1만 2천 청년학도와 55만 도민의 목숨건 투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초만에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앗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과 좌절에 움추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더 강고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그것은 '92~'93년에 제주도민을 재벌놈들에게 팔아 넘긴 민자당을 타도하고, 새 조국 건설의 깃발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진정한 도민 주체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991년!

많은 학우들의 구속이 말해 주듯이 힘겨운 과정이였지만, 아라 학우들의 힘과 지혜로 더욱 모다진 학생회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학우님들의 새해의 건강을 빕니다.

한해 동안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으며.

통일단결 총학생회장 위성곤

구국의 투혼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진군하시는 7천 아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년 해방돌풍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 철수가 애국의 열정으로 아라인 여러분에게 인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7천 애국 아라인 여러분! 이번학기 학비를 벌기위해 그리고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작년 부족했던 공부를 더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92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92년이 우리의 앞에 성큼 다가 왔습니다. 뒤돌아 볼 틈없이 내달렸던 '91년 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92년을 맞이하여 더욱 힘차게 생활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해야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91년도는 연초부터 동구의변화, 북한의 UN가입, 고르비의 대통령 사퇴, 특별법 통과, 강경대, 박승희, 양용찬 열사등의 분신등,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 하는데 많은 혼란과 좌절과 분노를 주었습니다.

특히 제주도민의 2년간에 걸친 특별악법 저지투쟁은 지난 4·3이후 도민대다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8일 야밤에 민자당 의원들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양용찬 열사의 분신 항거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단 10초 만에 법안을 통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노태우·민자당 정권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저지, 특별법 폐기는 노태우 정권 타도·민주정부 수립을 통해서만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92년은 미국과 노태우 정권의 선거를 통한 식민지 권력 재편 음모에 맞서 민민진영의 민주대연합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투쟁을 전개해야 할 중요한 해 입니다.

7천 아라인 여러분!

'92년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발전에서 자주냐 예속이냐, 민주냐 독재냐, 분단이냐 통일이냐를 가름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19에서, '87년 6월항쟁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을 '92년에는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투쟁합시다. 이미 승리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 길이긴 하지만 투쟁하고 승리하는 그길에 영광된 조국의 미래가 있음을 굳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학우여러분 '92학년도 '해방돌풍' 총학생회의 사업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2년 총학생회장 윤철수

□ '91년 한해를 열심히 뛴 사람들

농협제대출장소 소장 허상종씨

1년 사이에 예수금 3배로 올려놔
지점승격 기반다져

정년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 농협제대출장소의 지점승격을 위해 남다른 열성으로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91년 한해를 분주히 보낸 허상종(57)농협제대출장소장.

지난 '90년 5월 세인들의 눈으로 보면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제대출장소장으로 허소장이 부임하던 당시만해도 9억원이던 출장소 저축액을 현재 30억원으로 올려놓느라 동분서주하면서도 신간도서 코너를 마련하고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농협장학금을 증액지원토록 농협중앙회에 건의하는등 지점승격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업무이외에도 각종 대민업무의 서비스등을 개선시켜 농협출장소 이미지를 크게 쇄신시켜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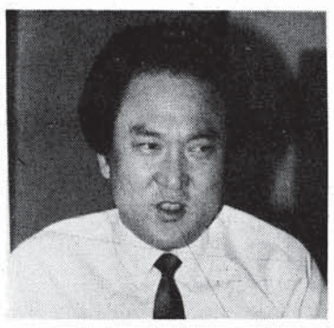
이상태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94년께에는 지점승격이 반드시 이뤄지리라 믿는다는 그는 출장소라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점승격을 위한 추진노력을 계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전 제대인의 도움이 컸음을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더욱이 제대가 모교(농학과 63년졸업)이기 때문에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곧 모교발전을 위한 일로 생각해 "출장소의 일을 모교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으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출장소 사무실이 매우 협소해 업무관리에 지장이 적지않고 이용자들에게 좀더 좋은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고 한다. 따라서 그에게 이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학교측에서 좀더 넓고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할애해 줘, 각종 최신식의 자동화된 사무장비를 구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금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학교에 농협출장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지난 11월 농협중앙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허소장의 지점승격을 향한 남다른 각고의 노력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오늘도 지점승격을 향한 허소장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허소장의 이 신념에 찬 발걸음이 캠퍼스에서 끊이지 않는 한 지점승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더불어 새해에는 허소장 못지않은 우리학교 행정직원들의 각고정려(刻苦精勵)한 업무추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京】



기숙사 관리과장 박전촌씨

기숙사식당 이미지 크게 개선시켜
음식 질도 본관 식당보다 좋아져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거의 이용자가 없다시피하던 기숙사 식당을 약 1년만에 체질을 개선시켜 하루에 약1~2천명의 제대가족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어 놓아 주목을 받고있는 기숙사 박전촌 행정주사.

90학년도까지만 해도 학교당국은 학생기숙사 식당을 경영난을 이유로 몇년동안 개인업자에게 무료 임대·운영시켜 보았으나 식단의 질이나 서비스등 전반적인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직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이같은 여론에 밀려 학생기숙사 식당이 '91년 3월부터 직영화되면서 식단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근래에는 하루 1천5백여명~2천여명의 학우와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숙사식당 종사자들의 노력도 톡톡히 한몫했지만 박과장의 일처리 솜씨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

종합대학 초창기인 지난 82년 우리학교로 전출와 '84년 당시에도 직영사업체제가 돼 있지 않았던 학교내 복지시설에 대한 직영화의 틀을 마련했던 그는 당시의 경험이 지난해 2월 기숙사로 발령을 받게되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스스로의 분석이다.

"84년 구내 식당등을 직영화할 당시와 여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숙사 식당을 직영하기 전의 문제점은 '서비스 문제', '식사질에 대한 문제', '위생상태', '식사가격에 대한 문제'등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런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소시켜나가다 보니 어느날 부터인지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며 그간의 과정을 간략히 들려주었다.

85년경 후생과에서 자리를 옮긴 그는 학생과에서 3년, 수업과에서 2년등, 기숙사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는 경리과에서 일을 보는등 학교 내 주요 행정업무는 거의 경험해 본 셈이다.

그는 또 대학 공무원들은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학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행정 담당자가 소신껏 최선을 다해 일처리를 해야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주위의 동료직원들로부터는 매사에 꼼꼼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는 "일감을 찾기 위해 기숙사 식당과 매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면서 요즘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등, 새학기 개사준비에 여념이 없다.

【哲】

'92학년도 대학원생 모집요강

대 학 원

1. 모집과정 및 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약간명
   ▼석사과정=국어국문, 경영, 경제, 법, 농, 원예, 축산, 농화, 어업, 수산생물, 해양, 생물, 물리, 식품공, 기관공, 통신공, 에너지공학과
   ▼박사과정=국어국문, 경영, 농, 원예, 축산, 농화, 어업, 수산생물, 해양, 생물, 식품공학과
2. 시험과목 ▼석사과정=영어, 전공, 구술시험
   ▼박사과정=영어, 제2외국어, 전공, 구술시험
   (제2외국어는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택1)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자에 한하여 한문을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음.

교 육 대 학 원(야간)

1. 모집과정=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약간명
2. 모집전공=교육행정, 국어교육, 영어교육, 국민윤리교육, 사회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생물교육, 체육교육, 미술교육전공
3. 전형방법=영어, 전공, 면접
4. 특별전형=각 전공 약간명
5. 교직경력특혜=교직경력 5년 이상인 현직 교원은 전형시 특별 고려함.

경 영 대 학 원(야간)

1. 모집과정=석사과정 약간명
2. 모집학과=경영학과(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아케팅관리, 회계학, 관광경영, 무역전공)
3. 전형방법=영어, 경영학, 면접

★ 최 고 경 영 자 과 정(야간)

1. 모집인원=○○명
2. 지원자격=학력에 관계없이
   ①공·사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②고급공무원 및 각군의 고급장교
   ③각종 사회단체의 간부
   ④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행정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석사과정 약간명
2. 모집학과=행정학과(일반행정, 지방자치, 사법행정전공)
3. 전형방법=일반전형 : 영어, 행정학, 면접
   특별전형:행정학, 면접
4. 특별전형 대상자 : ①5급이상 공무원
   ②영관급, 경감급 이상, 군·경찰공무원
   ③국·공영 사기업체 간부
   ④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 급 관 리 자 과 정(야간)

1. 모집인원=○○명
2. 지원자격= ①국가·지방공무원
   ②공·사기업체의 임직원
   ③군 및 경찰간부
   ④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 각 대학원 입학전형 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1992년 1월3일~1월10일, 각 대학원 교무과
2. 전형일시 및 장소=1992년 1월17일 오전10시, 각 대학원
   최고경영자 고급관리자 과정=1992년 1월 20일 오전10시 각 대학원
3. 합격자 발표=1992년 1월24일 오전11시, 각 대학원 게시판

◎ 기타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교무과로 문의 바람

※주소=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 전화=대학원 54-2152, 교육대학원 54-2162, 경영대학원 54-2173, 행정대학원 54-2182

제 주 대 학 교

개교 40주년의 새해에 생각한다—새로운 학풍수립을 위해

올해는 우리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기까지에는 숱한 시련과 싸워 견뎌내야만 했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도약을 위한 남다른 자기점검이 요구된다. 이에 제대 식구들이 느끼는 현실문제와 함께 서로에게 바라는 당부들을 모아보았다. 그냥 무덤덤하게 새해를 맞을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로운 각오로 정진의 준비를 다져야 하겠다.

〈엮은이씀〉

□ 교수가 학생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지성인되길
아집이 아닌 자기주장 펴야

강영봉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난 일년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마련이다. 특히나 우리들로서는 개교 4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다짐이 유별나리라 본다. 사람으로 치면 불혹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다.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귀신이 보이는 나이이기도 하다. 이런 틀 속에 있는 학생 여러분께 몇 가지를 부탁하고자 한다.

가끔씩 얼굴이 붉어지자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결코 얼굴이 붉어질 리가 없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 잘못을 가릴 수 있고, 잘못이 자인되면 부끄러움이 저도 모르게 얼굴로 피어오른다. 속에 감추어진 양심의 소리가 싹이 되어 지표에 해당하는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 물론 지표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싹이 돋는 기간은 더디게 마련이다. 그래서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란 표현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이다.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마음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자기 주장에 맞지 않는다 하여 적으로 생각하는 편협성을 갖지 않기로 하자.

인간 자체가 하나의 소우주이기에 사고가 다르고 행동양식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소우주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편협성이고 고집이다. 아집이 승하는 한 골 깊은 갈등과 답답한 대립이 있을 뿐이다. 모든 잘못된 문제를 기성세대의 탓으로만 돌리기 이전에 우리의 잘못은 없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물론 기성 안혼(技成眼昏)이란 말이 있듯 기성세대의 눈이 어두워 분별력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쌓아진 경험으로 세파를 헤쳐나가는 진짜 보잘것없는 슬기는 갖고 있다. 그러니 아집을 버리고 주장을 펴야 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맑고 고운 눈, 뜨거운 가슴, 불타는 열정, 차가운 머리를 믿기에 신앙과도 같다.

몸가짐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여러분의 세상인 21세기를 예비하자.

대학운영에 구성원 공동참여 필요
각종 대화통로 마련돼야

양복송
기성회직원노조부위원장

92년의 壬申年의 찬란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엔 늘 제주대학교 家族에 健康과 한량없는 祝福이 가득하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금년이 어언 본대학 개교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9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이 시점에서 과연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교육터전으로 내실을 견고하게 다졌는지 재삼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期成會勞動組合은 짧은 期間이지만 나름대로 미래의 삶을 선택하느라 미력하지만 성심을 아끼지 않고 最善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현안 사항들을 느꼈습니다.

감히 소견을 피력하기에 부족한 위치인줄 압니다만 할말은 할 수 있어야 되겠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펜을 들게 된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時代精神에 부응하여 전세계가 급변하는 초능적 상황에 낙후되지 않는 명실상부한 제주대학교로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관계관을 비롯 책임지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노심초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대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의 터전은 어떠한 명분이나 변모만을 다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百年大計를 꽃피울 탐구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처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대학의 운영제도에 있어 구성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분상의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공동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차단시키는 모순은 단호히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부하가, 표창은 상관이 받는 통분스러운 일이 생겨서는 아니되며 일선에서 초병과 같이 수고롭게 일하는 하위직 교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둘째로 애향애교심의 발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있고 또 고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애교심의 발로를 꾀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希望을 가질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고향의 우수한 자녀들을 필연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학교 모 교수님이 일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성적의 자녀를 본 제주대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코 끝이 찡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러한 애향 애교정신을 갖고 근무하는 교직원이 몇명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셋째로 공존정신입니다.

나만 잘되면 그만이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본 대학의 청사관리인들의 귀거장소의 현장을 살펴보십시오. 3분의2는 청소도구나 물건 보관창고에서 피곤한 몸을 가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실행을 않음은 아는 지식인의 가치상실입니다. 비록 계급사회의 직장이지만 공존정신이 있다면 내식구 내친족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나 직종은 씨(種子)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근본적 사항들이 해결돼 나갈 때 제주대학교는 聖進聖德의 浩然의氣象으로 무궁발전되어 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양적 확산보다는 질적 변화를
연구실·도서관이 불야성 이뤘으면

김철수
동문·중앙여고 교사

올해로 開校 40주년을 맞게되는 母校의 발전에 感懷를 느낀다. 해를 더할수록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成長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鼓舞的이라 생각된다. 이제 개교 40주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모교의 無窮한 발전을 위해 省察의 時間을 가져볼 때다.

大學은 모름지기 大學다워야 한다. 바로 아카데미즘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얗게 불을 밝힌 硏究室과 학생들로 가득찬 圖書館, 지성이 넘쳐흐르는 講議室과 낭만이 있는 캠퍼스 이것들 모두가 大學만이 누릴 수 있는 特權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딱히 그러하질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쉽다. 勉學하는 風土造成을 위해 學校行政當局과 敎授 學生들이 모두 自身을 위한 投資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濟州大學은 濟州道의 大學으로 特性化되어야 한다. 地政學的으로 環境的으로 대단히 特需한 위치에 있는 본도의 입장에 비춰볼 때 모교는 全國的으로 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特需한 分野에서 가장 權威있는 專門硏究機關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陸地部대학의 뒤만 따라갔을 뿐이지 獨立的이고 創意的인 領域에서의 발전은 매우 미약한 형편이었다. 이제는 우리 대학만이 지닐 수 있는 獨特한 色彩를 創造해가야 한다.

大學當局과 敎授들은 도내의 우수한 頭腦資源들을 新入生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努力에 더욱 拍車를 가해야 한다. 지금껏 惰性에 젖은 安易한 姿勢로 "우린 아쉬운 게 없다"는 식의 新入生募集方式을 固守한다면 母校의 發展을 期待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육지부의 世稱 一流 大學들도 優秀資源을 確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모교에서는 너무 高姿勢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할 때가 많다. 이 점은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改善될 것으로 보이므로 弘報活動을 強化할 것을 提案한다.

半世紀를 바라보는 母校가 發展을 거듭하여 東北아시아 및 環太平洋圈의 中心大學으로 成長하기 위해서는 量的 擴散보다는 質的 深化가 더욱 必要하다는 점을 거듭 強調하고 싶다.

교수·학생간 마음의 벽 허물자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할 때

이 동
장학담당관실 조교

어느시대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융성과 그 나라의 발전은 그 나라의 청년들에게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룩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자세가 아쉽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지성인을 자처하는 대학생들의 정신자세를 새삼스레 가다듬을 때가 아닌가 싶다.

학생·교수·교직원 어느누구가 먼저 주체라고 키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아끼며 존중하여야 한다. 이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대학교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하는 각자 반성의 시간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받으려고만 하지말고 주려고만 하자. 만약 받으려고 애를 쓰거나 요구를 하게 된다면 항상 빈틈이 생기게 되어 그 빈틈은 메꾸기 힘들 것이다. 그런 가운데 싹트는 반목과 질시 그리고 냉대로 인해 대학의 발전은 점점 퇴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연중 축제로 일관하는 방향을 달리하여 좀더 개성있는 축제, 대학문화의 꽃인 축제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92학년도 총학생회에 기대를 모아본다.

이제는 3, 4학년이 되어 취업준비를 하겠다면 큰 오산이며 입학과 동시에 취업준비를 하도록 학생지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을 밤낮 구분없이 불야성을 이루어 면학의 열의가 충만한 학생들과 이에 부응하는 교수진들의 심오한 연구 및 성의 있는 강의가 조화를 이루게 될 때만이 진지한 학문 연구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할 수가 있다.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를 보았을때 교수는 권위로써만 학생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권위다운 권위를 스스로 옳트게 여건을 조성한다면 사제지간의 갈등은 대화로써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으리라 본다. 학생들 역시 막연한 선입견을 과감히 떨치고 무조건적인 요구를 앞세우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반복되는 갈등을 해소해 나가려는 많은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직원 역시 사사로운 일에만 염두에 두지말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보다 친절하게 맞이하여 대학발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겠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교수·교직원·학생 모두 하나가 될 때 나누는 마음이 모여 함께 사는 우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모두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우물밖 개구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부여된 책임과 사명 직시
자신감 회복…늘 깨어 있어야

고호성
법학과 조교수

제주대학은 제주도의 정신이다. 40년의 연륜 속에 4년제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오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규모와 능력을 갖추어 왔다. 또 제주도 유일의 종합대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주사회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제주도가 잠들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반성하여야 한다.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 제주도의 정신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왔는가? 우리는 혹시 게을렀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혹시 비겁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탓할 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탓해야 하는 것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도록 하자. 우리는 병들어 있다. 병들어, 우리에게 지워진 무거운 사회적 요구에 만족스럽게 응하지도 못했고, 이제 우리가 지니게 된 종합대학으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했다. 각종 전문분야별로 8개 단과대학 53개학과, 4개 대학원, 181명의 박사학위소지자, 8천명에 가까운 학생, 1만5천명이 넘는 졸업생을 지닌 대규모 종합대학으로서의 능력(1991.4.1기준)이 집결되지 못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병들어 분산되어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의 회복이다. 왜소한 시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자.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다. 모자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 자신에 대한 애정일 뿐이다.

스스로를 아끼도록 하자. 스스로 노력하면서,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장점을 북돋아 주기로 하자.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쓰러지고 자기 혼자 서 있을 수는 없다. 서 있어 보아야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다. 주위의 사람들이 커져야 나도 커진다. 연구실과 실험실, 도서관의 불을 밝히도록 하자. 어려운 순간마다, 게을러지려는 순간마다, 비겁해지려는 순간마다, 우리는 제주도의 정신임을 자각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버텨나가도록 하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제주도가 깨어 있게 된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시급
식당·매점이용시 예의 갖추자

유우영
소비조합노조위원장

내가 소비조합에 입사한지도 벌써 네번째 해가 바뀌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먹서먹해 나와는 별 세계와 같은 이곳 제주대가 이제는 나의 소중한, 우리가족의 생계를 이어주는 어머니 젖줄같은 곳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곳 제주대학교 내에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인 기성회직원, 소비조합직원이 있다. 그러나 웬지 소비조합만 외톨이처럼 천대받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소비조합도 제주대학교 구성원 중의 한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따돌림받는 것 같은 기분은 왜일까. 이것은 나만이 드는 느낌이 아니라 소비조합직원 모두가 느끼는 공통점이란 걸 알게됐다. 소비조합은 학교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며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과 교수 모두가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곳이 바로 소비조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비조합 직원도 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불우한 조건속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소비조합 직원을 볼때마다 나는 안스러움을 느낀다.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이라도 제대로 돌아가야 그래도 뭔가 보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소비조합도 기성회처럼 학교차원에서 지원 좀 해주었으면 한다. 그렇다고 복지시설과 환경개선과 같은 거창하고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땀흘린 대가에 비해 너무나 저조한 임금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소비조합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몇가지 부탁이 있다. 우리 소비조합직원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베풀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식당과 매점을 이용하실 때에는 담배를 물고 식사를 타러 오지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그렇다지만 식당에서는 금연좀 하면 안될는지. 그리고 무의식중에 식당바닥과 휴게실 바닥 같은 데 침을 뱉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모든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나쁜 습관이다. 휴지와 담배꽁초 등은 꼭 휴지통과 재떨이에 버렸으면 한다.

한해가 시작되는 올해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고쳐졌으면 한다. 아울러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제주대에 몸담고 있는 모든분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 되길 소망한다.

□ 학생이 교수에게

학생과 늘 함께하는 스승이길
학문적 관심 적극 유도해줬으면

장신옥
사회학과

학생과 교수 분명 이 두 관계는 학문을 매개로 인간적인 유대로 맺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제도에 의해 부여된 수동적인 관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교수'라는 명칭은 지난시절 '선생'이라는 이름보다 친근감의 정도가 덜한지도 모르겠다.

마치 대학에서는 서로의 무관심으로 교수와 학생이 각자가 자신의 일만을 다하는 것이 최선인 걸로 착각하게 한다. 이로인해 우리는 스승다운 스승을 잃어버리고 학생다운 학생을 찾아보기 힘든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며 결례를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학생인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수상 네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강의실 복도에서 혹은 교내외에서 만났을 때 학생들의 인사를 무뚝뚝하게 굳은 얼굴보다는 혹 낯이 선 학생일지라도 관심있는 표정을 연출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좋다. 만날 때마다 인사해도 쑥스럽지 않고 담소 몇마디를 건넬 수 있는 여유있어 보이는 교수님이 좋다.

자신이 측정하여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위보다는 학생들이 인정하는 권위를 선택하는 교수님은 충분히 이와같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강의시간에 충실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관심을 충동질 하는 교수님의 모습이 바람직하다.

대학 초년생으로 이제 그 시기가 다 끝나 1년간의 강의시간을 생각해보면 좀 더 전문적인 서적을 선택했다는 것외에 강의의 질은 별반 다를게 없다고 여겨진다.

혹 몇몇 교수님들 중에는 자신들의 지식의 물을 부어주기에 우리학교 학생들의 그릇이 적게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물론 우리학교 학생들의 자질이 타 명문대생들과 비교하기엔 부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라 생각했을 때 소명의식이 부여된 사고체계가 교수님들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셋째, 고민의 종류가 무엇이든지간에 무언가 고민이 있을 때 정말 찾아가 뵙고 싶은 교수님을 학생들은 원한다. 정말 자신의 고민을 해결코자 했을 때 교수님을 찾아본 학생이 몇이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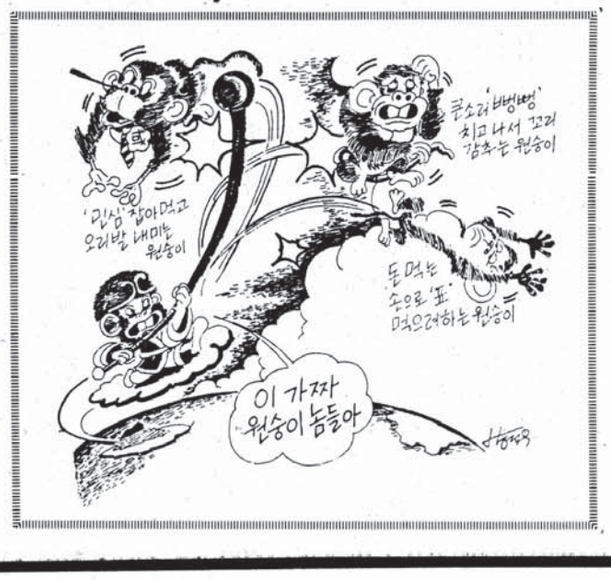
찾아가고 싶으나 알게 모르게 쌓아놓은 높은 마음의 담벼락이 연구실 방문 두드리는 것을 어렵게 한다. 부담감이 든다고나 할까?

넷째, 학과행사나 개강·종강파티시 빠짐없이 참석하시려고 애쓰는 교수님의 모습은 정겹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학과 학생들의 얼굴을 익히고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코자 하는 교수님을 싫어할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상 제안한 네가지의 모습을 지닌 교수님은 분명 학생들의 입에서 존경의 언어로 회자될 것이다.

끝으로 내년으로 마흔의 중년어른이 되는 우리학교에 더 이상 '…인체'하는 교수님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濟大漫評



대학발전기금 기탁상황

(접수순) (91.11.21~현재)

소 속	직 급	이 름	출연금액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김연수	1,000,000
사범대학	교 수	고명규	500,000
사범대학	부교수	양영수	200.000
법정대학	전임강사	김성준	300,000
교육대학원	원 장	박행신	1,000,000
농과대학	학 장	권오균	1,000,000
해양과학대학	학 장	박정식	1,000,000
사범대학	부교수	송성대	300,000
해륙기계공업사대표		김순원	10,000,000
사무국	경리과장	홍봉근	500,000
사무국	시설과장	홍종수	500,000
사범대학	교 수	김수종	500,000
대학원	원 장	박양문	500,000
인문대학	서무과장	박문웅	500,000
기획실	기획담당관	고원일	500,000
제주대학교기성회직원노동조합조합원일동			905,200
사범대학	교 수	고성준	300,000
교무처	수업과장	김인균	500,000
日本大阪高電社代表取締役		고기수	워드프로세서1대 일백만원상당
계		19명	20,005,200
누 계		71명	246,189,696

△접수장소:본교 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

△접수방법:직접기탁 또는 우편 및 전화접수 가능

△기 탁 액:제한없음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54-2140, 2001, 2006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소고

몇몇 독소조항 삭제 불구 문제소지 여전

법효과, 향후 당국 정책 및 도민 감시의지에 달려

윤 양 수
법학과 부교수

1. 머리말

지난 1990년과 1991년의 우리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은 제주도 개발특별법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과 서울·부산등 타지방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이 法案이 내포하고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입법반대운동, 유보주장, 서명이나 성명서 발표, 독소조항의 삭제요구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법에 대한 비판적 주민운동을 전개하여 왔다(이를 이하에서는 특별법 비판여론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이 법은 얼마전에 국회의 건설위원회·法司委員會·本會議(총회)에서의 변칙통과라는 입법과정상의 커다란 흠을 남겨 놓은채 확정되었다.

이제 부속법규(대통령령·조례)의 제정과 이 법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간의 특별법 비판여론이 이 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이법에 대하여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

2. 특별법 비판여론의 형성과정

특별법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989년9월에 나온 KDI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라는 연구보고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제주도 개발臨時措置法(假稱)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관장하에 특정지역계획과 道종합개발계획을 통합한 하나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그 필요론을 개진하였다(위 연구보고서 P.282).

그러나 이는 제주도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특정지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알려진 바로는 내년이면 제주도가 특정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라 한다(국토개발연구원,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중간보고서, 1991.3 P.62).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함에 있어 그 법이 적용될 지역사회의 현실여건과 지역개발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 및 문제점의 분석등을 거친 후 어떤 내용·어떤 성격의 특별법이 필요한 것인지를 사전에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출발에서 부터의 문제였다.

1990년 4월23일 대통령이 제주도를 연두순시했을때,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지사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후 同年 8월 하순에 제주도의 試案이, 9月 초순에는 中央案이 각각 나왔다.

그런데 이들 法案들은 그 부칙에서 각각 「1992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이 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道案), 「이 法 시행당시 종래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정된 계획이나 처분은 이 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中央案)라고 정함으로써, 이 法이 제2차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인식됐고, 내용면에서 제주도의 관광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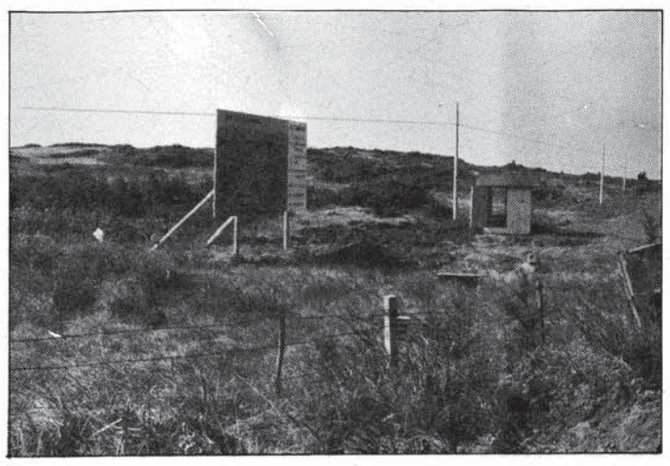
1990년 9월5일에 본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이 法案을 반대·비판하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표출되었으며, 9월 11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에서도 이 法案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즈음 도내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비판하는 성명을 내기 시작했고, 도내 신문에서도 입법반대 내지 유보의 주장이 상당히 개진되었다.

그후 11월16일 본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試案이 발표됐으나 비판여론만을 확산시켰을 뿐이다.

1991년 2월에 본도출신 국회의원들의 주선으로 특별법기초협의회가 구성되고 同협의회의 법안기초소위원회가 成案한 특별법안이 5월20일에 공표됐으나 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일자 6월8일에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초소위원회案도 여전히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행위제한배제규정과 타법규상의 인·허가 의제를 통한 사업시행절차 간소화규정 및 1992년 부터 시행하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이 법에 의한 종합계획으로 본다는 부칙규정을 계속 온존시킴으로써 이 법이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필자의 이러한 판단은 특별법案에서 의도하는 환경보전문제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1항(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責務를 진다), 제3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法制上·財政上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과 그외 다수의 환경보전관계법규가 있음에 비추어 정책의지만 있으면 현행법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同法案에서의 농·축·수산업 진흥계획등도 정책의지만 있으면 현행법하에서 얼마든지 수립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을 여기에 첨기해 둔다.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과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이 상충될 때, 특별법이 우선하게만 되어있다.

1991년 6월 초순부터 특별법저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6월26일에 특별법 토론회가 문예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공무원들의 좌석선점과 폐문으로 도민참석이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8월8일 본도 출신 국회의원 주최공청회에서 입법반대 내지 유보의견이 다수 표출되었다.

9월 이후 여러차례 있었던 대학생들의 특별법 반대시위와 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 결성및 수차의 궐기대회 그리고 11월7일 양용찬씨 분신자살, 그후 특별법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같이 특별법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수고와 자기희생이 컸음도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3. 특별법 비판여론의 성과와 의미

그동안 폭넓게 형성된 특별법 비판여론은 이 법안이 당초에 지니고 있었던 입법의도나 성격을 변경시키고 이 법안에 들어 있었던 여러가지 독소조항들을 삭제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비판여론의 영향으로 특별법이 당초의 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의 예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내용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계획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제2차 종합개발계획내용여하에 따라서 지역환경의 훼손과 주민의 立地弱化를 스스로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여론으로 인하여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으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 되어졌다.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행위제한배제규정이 들어있을 경우 중산간의 어느 지역에서라도 종합계획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제주도의 지역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었는데 이 규정도 결국 삭제되어졌다.

셋째, 관광개발촉진에 많은 비중이 두어졌던 당초의 案과 비교할 때 法條文上 환경보전과 1차산업진흥에 관한 규정이 확충되어졌다.

넷째, 당초의 이 法案에 들어있었던 토지의 강제수용조항, 개발사업자의 토지선매권조항, 토지매수불응자에 대한 처벌조항등 이른바 독소조항들이 많이 삭제되고, 인·허가 의제조항도 대폭 축소되었다.

이상은 그간에 광범하게 형성된 도민의 특별법 비판여론이 얻어낸 구체적 성과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많은 도민들에 의한 그동안의 특별법 비판여론이 특별법 자체에 미친 영향 못지 않게, 그 비판여론 자체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를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그간의 상당한 특별법 비판여론에는 이제까지의 제주지역개발의 내용, 과정, 결과와 개발정책 및 개발행정에 대한 평가의 표시라는 의미와, 지역문제에 대하여 참여하고 공동노력하는 주민의 힘의 표현이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점은 특히 중앙 및 지방행정당국이나 諸選良들이 깊이 도새겨 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진다.

지금까지의 제주개발과정이 도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깊히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이제 제주지역사회는 바람직한 미래상의 定立, 올바른 지역개발의 理念과 방향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당국의 개발정책의지에 대한 심사숙고와 무거운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4. 특별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은 지속돼야 한다

지역개발이나 환경보전행정에 관한 법의 효과는 정책의지 여하에 크게 좌우된다. 현행법들 중에도 행정당국의 의지여하에 따라 어떤 법조항은 활발히 적극 적용 시행되고 어떤 법조항은 재정·기술·장비·인력부족등의 이유로 별로 집행되지 않거나 아주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특별법도 만일 여러조항들중에서 다른 조항에 비해 제14조의 의제조항(특히 관광진흥법상의 지정·승인·허가의제)을 적극 활용할 경우, 특별법은 바로 관광개발촉진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특별법이 제주지역사회에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당국의 정책의지와 그를 통제 감시하는 도민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아진다.

특별법은 그간의 비판여론으로 인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나 의도가 선회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민들은 앞으로 그 하위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시행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어떤 정책의지로 이법을 집행하고 제주지역개발을 추진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특별법에서 이법에 의한 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군사사항 예외)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기존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기존의 모든 법률이 유효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과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이 상충될 때, 後者가 우선하게만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 부터 시행할 예정인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 당국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 확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이 법에 의한 종합계획이 결정될 때까지는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기존법에 의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91년 8월 30일에 공개되었던 제2차 종합개발계획案에 의하면 계획기간인 1996년까지 10개의 골프장, 2천2백실의 콘도, 그외 많은 위락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고, 수려한 경관지에 숙박시설등이 들어서는 관광지구를 개발하는 내용등이 들어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골프장사업허가, 콘도건축허가, 위락시설설치허가를 모두 해버린다면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에서 주민참여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그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특별관리지구의 지정도 무의미해 질 수 있는 것이다(특별법 제19조 4항, 제20조 3항, 제21조 5항 참조).

따라서 특별법을 통하여 진실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주체개발을 추진하려면 제2차 종합개발계획중 자연환경을 직접 훼손시키는 관광개발계획의 추진은 유보시키는 문제를 관계당국에서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만일 당초의 특별법제정 취지에 나타났던 국제적 관광지로의 신속한 제주개발이라는 정책의지가 되살아나서, 이번의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사업시행허가를 재빨리 내줘버리고, 나중에 특별법상의 종합계획에 의한 관광개발을 새로이 추진하게 될 경우, 그렇게 넓지 않은 제주섬에는 관광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觀光濫開發이 이루어져 제주의 빛(光)을 잃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확연히 해결되지 않은 현단계에서는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이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 질 것인지에 대하여 도민이 계속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도 지하수오염 문제 심각'

제6회 사발연포럼 '제주도 수자원…' 서 지적

제6회 사회발전연구포럼 '제주도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이 사회발전연구소(소장 강경선교수 농업경제학과) 산하 제주도 수자원연구회(회장 박양문교수 농학과) 주최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월 13일 오후 1시30분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서사로 소재)4층 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제주도 수자원 문제의 지구물리학적 접근"(이기화 교수, 서울대 지질학과), △"제주도 수질관리의 기술과 전망"(유재근 소장, 환경처 국립환경연구원 호소-수질연구소) △"제주도와 오아후(OAHU)섬의 수자원"(한원규 과장, 농어촌진흥공사 제주지사 지하수과) △"제주 화산도의 하천과 수자원의 이화학적 특성"(손인석 실장, 제주도과학교육원 지질연구실·고용구 과장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 △"제주동부지역 지하수의 고염도에 관한 지질학적 고찰"(윤정수 교수 해양학과) 등 5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연사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기화=제주도의 지하수개발에 관한 지구물리학적 탐사기법에 관한 연구결과, 지전기(地電氣) 탐사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전자파(電磁波) 방법의 적용가능성은 더욱 연구돼야 하며 기타 지구물리탐사법의 효용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전기내지 전자파 방법의 신중한 적용은 지하수의 전반적 및 주지적 분포양태, 해수침투, 지하수 오염 등의 중요한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유재근=제주도는 양질의 풍부한 지하수자원을 갖고 있으나 지하수 관리정책의 소홀로 그 오염의 정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향후 용수수급계획에 큰 차질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용수의 개발과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및 외부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들 수 있다.

▲한원규=지하수자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자원의 기초자료 취득, 둘째로 지하수자원의 오염원인 생활하수, 공장 및 양어장폐수, 농약 등이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화시설 완비, 셋째 지하수 개발방법을 현재의 관정개발과 함께 상위지하수 부존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결정하고 터널을 굴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 검토, 넷째 지하수에 대한 장기관측 시행, 다섯째 수자원을 종합관리하는 전담기구 설치, 마지막으로 지하수법 제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손인석·고용구=현재의 용수수요증대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해수 침투에 의한 지하수의 염분 농도 증가 및 지반침하 우려 및 수질악화 토양오염의 심화와 산업폐기물의 증대 및 무처리 방출로 하천 및 해양오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계 여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하 수자원의 보존대책과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지질조사와 함께 수자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남북사면으로 분포하고 있는 40여개의 하천(건천)과 주변 지역의 지질과 하천의 구조적인 면을 정밀조사하여 지하수의 맥과 흐름을 찾아 지하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해안연안의 기저용출수의 격감 원인 분석과 중산간지역 혹은 해안에서 내륙쪽으로 용출수의 분포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넷째 기생화산에서 흐르는 지표수와 용출수 관계를 장기적으로 조사하여(중산간지대) 수자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지하수의 순환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하수 관측망을 설정하여 지하 수위 변동 상태 등을 계속적으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주도에서는 지하수를 부존할 수 있게 그릇역할을 할 수 있는 암맥을 발견하지 못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타당성 여부에 따라 상위 지하수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정수=섬지방의 지하수 자원이 염분함유량의 증가를 억제키 위하여는 과다한 양수를 삼가야 하며 아울러 지역별로 표준조사공을 설치하여 자연수위, 안정수위, 채수량 및 수질분석 등을 그 지역의 조수위, 강수량, 계절등과 관련시켜 정기적으로 관측하여야 한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오윤근(해양환경공학과)교수 등 지정토론자 9명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POSCO 메세지 ⑧ 종강편

나의 책걸이는 언제?

옛 서당의 큰 잔치,
책 한권을 다 배울 때마다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떡을
만들어 먹으며 배움의 한 단계를 결정짓던 행사 — 책걸이
정해진 시간없이 한권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만 할 수
있었던 책걸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개강 후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벌써 한 학기 종강 —
책걸이의 종강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의 종강은 아닙니까?
책 한권이 주고자 하는 학문을 나는 제대로 받아 들였는지…
학점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훑어보지는 않았는지…
진정한 책걸이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생각 해 보셨습니까?

떡과 함께하던 책걸이가 막걸리 쫑파티로 변했더라도 진정한
책걸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예전의 '책걸이 떡'을 먹을 수 있는지를…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 제주도개발특별법 날치기 통과를 보며

'날치기'는 사기꾼이나 쓰는 수법

'국민편'이라는 얄팍한 코미디로 농락말길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연일 계속되는 시위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것보다는 입시에 신경이 쏠렸던 시기였다. 그렇게 지나치면서도 언뜻 들었던 구호가 생각난다. "이것이 민주화냐, 군부독재 끝장내자" 87년이었다.

정의사회구현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룩하겠노라고 늘 떠들어대던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단호한 물음이었다.

인간의 이성의 최고 발현 형태가 정치다. 그러나 13대 정기국회까지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 그 누가 정치를 이성의 발현물로 보겠는가. 아연실색일 뿐이다. 날치기는 소매치기나 사기꾼이 쓰는 수법인줄 알았건만 가장 지체높으신 국회의원의 소유가 될 줄이야…. 이제 더 장황하고 화려하게 민주를 외치며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노태우 정권에게 말하겠다.

"이것 또한 결코 민주화라 할 수 없다"

최근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아울러 고도(?)의 정치코미디를 본 느낌을 갖게 된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국회의사당,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실력저지. 여당은 야당에게 14대 총선을 의식하는 행동을 제발 그만하라고 다그쳤다. 그렇다면 그러는 여당은 총선에 마음을 비웠는가? 현재 이땅에서 권력욕을 가장 뜨겁게 불사르고 있는 정치세력이 노태우-민자당 정권이다. 이것은 굳이 선(善)의 제스추어를 보이지 않아도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이나라 정치가 그러했으니까. 국민편에 있다는 얄팍한 동작보다는 부정과 부조리와 고도의 정치공작이 훨씬 믿을만하고 확실하니까.

어이없는 웃음은 계속된다. 노태우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국회의장을 폭행하는 일은 없으니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늘 그랬다. 문제의 본질은 은폐하고 나타난 현상만을 부각하여 '비도덕적'이니 '비윤리적이니'라는 말을 해왔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에서 단 몇초만에 그것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천하의 비도덕적인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던가. 결국 두명의 야당의원의 운전기사를 구속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어진 너무나 우스운 정치코미디. 그러나 우리는 여느 코미디를 본 것처럼 웃음으로끝내지는않을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얼마나 눈물겹고 자랑스러웠는가? 백발이 성성한 범도민회 대표들의 목숨 건 단식투쟁, 급기야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는 송구스러움과 아울러 더욱 힘찬 투쟁의 결의를 다지곤 했다. 평화적인 시위에 중무장한 백골단·전경의 최루탄·군화발세례와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에도 우리는 의연했다. 제주도만의 투쟁이 아니라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의 연이은 투쟁소식에 힘을 얻기도 했으며, 네번에 걸친 범도민대회 및 계속되는 집회에서 운집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또한 모금함에 성금을 넣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모두가 제주도를 사랑하는 서로의 마음을 교환했었다. 그리고 제주도를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산화해가신 양용찬 열사의 영정 앞에서 우리는 비통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러면서 입술을 깨물며 약속했다.

"열사여,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열사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특별법반대투쟁은 멈출 수 없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우리가 세운 자랑스런 깃발, 범도민회 깃발 아래 모여야 한다. 그래서 더 크게 특별법 무효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쳐야 한다.

가장 수준낮은 정치가 행해지는 나라다. 다시 또 이러한 정치형태를 용납한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돼버릴 것이다. 이제 제주도민이 앞장서자. 특별법 무효와 노태우-민자당 정권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의 그 한길에서 제주도민이 선봉에 서자. 〈이재숙 국어국문학과〉

패배·감상주의 지양

승리의 그날까지 총진군할 때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정되었다. 국회의 날치기 수법이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사용되었다. 그것도 숨죽이며 TV를 보다가 '이제는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어간 폐정 15분전에 10초만에 통과되었다. 이후 응징을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가 있었고, 범도민회 성토대회가 있었다. 그러나 특별법은 이미 제정되어 버린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은 침체된 듯한 사람들의 표정이 우리를 그야말로 힘빠지게 한다. 될 말인가?

강고한 적들의 탄압을 뚫고 어머니의 한 서린 땅 탑동 매립지에서 사수해낸 범도민대회, 전에는 짱돌하나 던지면서도 보도블럭 하나 깨면서도 아저씨·아주머니의 지탄을 받고 욕을 먹어야 했지만 이제는 화염병을 던지고 보도블럭을 깨며 점포문을 닫고 나와서 함께 싸워주신다. '내딸이요. 내아들이요'라며 전경 백골단 틈에 잡힌 사람들 옷깃을 잡고 항의해 주신다.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결의를 보라는 것이다.

요즘 어느 술자리, 어느 집에 가더라도 셋만 모이면 고스톱이 아니라, 특별법에 대해, 노태우 정권의 본성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분노에 찬 제주도민의 모습이다.

92·93 대격변기를 맞이하여 이런 의식들이 우리의 조국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분노의 함성이 이편에서 울리면 저편에서는 투쟁으로 화답하는 그런 제주도가 내 눈에는 보인다.

노태우가 사십여년 동안 잠재우려 노력하던 이땅, 결코 잠들지 않는 남도가 죽창 들고 일어서는 모습이 내 눈에는 보인다. 여러분도 보이는가?

앞으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게 '특별법 폐기, 노태우·민자당 타도, 민족해방'을 외치며 몰아쳐야 한다. 쓸데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패배주의적, 감상주의적 언사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방향을 논의하고 도민들과 전국민을 일으켜 세울 방도를 논의할 때라 생각된다.

지금, 92·93년을 대비하는 이때에, 승리적 관점과 결의로 서로를 다그치도록 하자.

〈민해철 독어독문학과〉

도민의사 반하는 법은 무효

폐기투쟁으로 본떼 보이자

아직 제주도에 겨울빛이 깨어나지 않음은 무슨 이유일까? 가을 걷이가 끝난 들판에 흐드러지게 핀 억새풀만이 드문 드문 있었다.

어떤 일이 생겨 산업도로를 따라 중문으로 가는 길이었다. 공사중이라는 팻말이 눈에 띄고 그 중에서도 큰 안내판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1992년 ×월 ×일 완공. ×××골프장 건설중'이라는 글자가 크게도 씌여져 있었다. 웬지 골프장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생각난다.

날치기 통과·13초·사람들의 고함소리·처절한 몸싸움 등 그 화면이 아직도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생생하게 그려진다.

저것이 합법적인 법인가? 그래서 저렇게 통과시켜야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TV를 끄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저들이 국민의 대표인가? 어떻게 하면 저런 두꺼운 안면들을 가질 수 있을까? "믿어주세요"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순식간에 일어난 불은 꺼질줄 몰랐다. 그로 인해 터질 것만 같았다.

도민들이 특별법제정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하고 범도민 대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분명히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인가? 그 법은 무효다. "민주화"를 외쳤던 곳에서 과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법은 제정될 수도 통과될 수도 있는가?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해온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현재 일어나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격렬한 가투 양상은 일회적인 시위에 그친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좀더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모습들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관주도하에 특별법 홍보 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간과 마음이 다른 때보다 훨씬 넉넉한 이 때 부모님, 친구들과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고 동네 사람들과도 이야기해 보자. 우리에게는 7천의 힘과 입이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반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더욱 열심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계략에 못지 않은 대책들을 세우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대책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준비를 이 겨울 방학동안에 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제주도에 겨울빛이 날 것이다.

〈오연숙 사학과〉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 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담는 독자들의 참여공간입니다. 항상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범도민회 한석지교수

"법폐기·선거투쟁 병행할터"

지난 12월 18일 밤11시 50분께 정기국회에서 민자당에 의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10여초만에 날치기 통과된 이후 제총협과 범도민회 주도하에 특별법 무효화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투쟁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그간 특별법 제정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범도민회를 실제로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범도민회 한석지 정책위원장(사회교육과 부교수)을 만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법이 오랜기간 동안의 논의·논쟁과정에서 도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도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임이 명백해졌다.

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도민 의견을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가 따라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사람, 즉 노태우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의해 특별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이것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도민을 위한 개발,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정착이 어렵다는 절망감이 들었다.

그러나 절망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특별법이 민자당에 의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긴 했으나 범도민회에서는 계속 특별법 철폐투쟁을 전개해 도민들에게 승리를 안겨줘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특별법이 집행될 때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중앙이나 관이 마련한 60년대 이후 제주도 개발의 방향이나 계획은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이 시행된 이후 땅투기, 자연파괴, 환경오염, 지역주민이 배제된 개발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앞으로의 개발은 이런 전철을 되밟지 말아야 하는데, 특별법은 거대한 관광시설 중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이전의 부작용을 확대·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법제정 과정에서 적용대상인 도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파행적으로 이뤄진 비민주성 때문에 도민의 저항은 필연적인 것이다.

△위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 혹은 극소화 방안은?

—오염방지책이나 자연보존책의 마련없이 개발을 가속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지하수 개발시 용수량을 파악하는 등 기초조사의 바탕위에서 개발돼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좋은 대응방법은 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0일 범도민회에서는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범도민회의 명칭을 '특별악법 폐기를 위한 범도민회'로 바꿨다. 앞으로의 대응은 범도민회의 구성목적이 특별법을 폐기시키는 데 있으니 만큼 법이 시행될 경우를 전제로 생각할 수는 없다.

△범도민회의 앞으로의 투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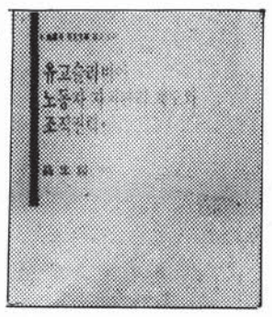
—특별법 반대투쟁은 2단계 투쟁으로서 폐기투쟁을 더 실질적이어야 하고 투쟁방법도 강화돼야 한다. 따라서 범도민회는 체제를 정비, 강화한 후 구체적인 사업들을 전개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특별악법 폐기를 위해 국회청원 투쟁과 악법무효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고 둘째, 도민생존권 쟁취투쟁으로 개발에 따른 지역문제 발생시 범도민회 차원의 연대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셋째, 국회청원 활동과특별악법 무효화 투쟁을 제도권 속에서 전개하기 위해 다가오는 14대 총선 때 민자당후보 낙선 운동 및 범민주후보 지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넷째, 제주형 개발철학 정립과 실질적인 대안제시를 위한 상설 연구소설치를 추진할 것이다.

【김미진기자】

서 평 『유고슬라비아…조직권력』

동구권 변화의 실상 체계적 조망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일은 비단 개혁과 급변의 격류에 처해있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만 한정된 과제가 아니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 양식과 진행 방향은 그 주변 국가들에게는 물론이고 세계체계 자체의 재구성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3의 국민주권 개념을 모색해온 지구촌 이웃들에게 있어서 동구권의 도전과 실험은 새로운 시금석처럼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실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과 극복을 위한 몸부림은 이제 처음 시도되는 일이 아니다. 이미 40여년전부터 유고슬라비아는 국가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의 관료적 각질성이나 권력적 주체화 현상을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구축하는 일에 진력해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유고슬라비아가 의탁하고 있는 노동자 자치관리 제도이고, 이 제도가 한때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되고 간주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유고슬라비아의 경험은 새로운 변화의 방향과 질서를 모색하고자 하는 동구권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하나의 교시적 지표로서 호소력과 선도력을 지녀야 마땅할 일이다. 과연 체제 개혁의 혁명적 소용돌이 속에 놓여져 있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이 제도는 매력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가? 자치관리 사회주의가 중요한 사회가치로 뿌리내린 유고슬라비아가 가장 치열한 내적 갈등과 자기파괴적인 분열의 길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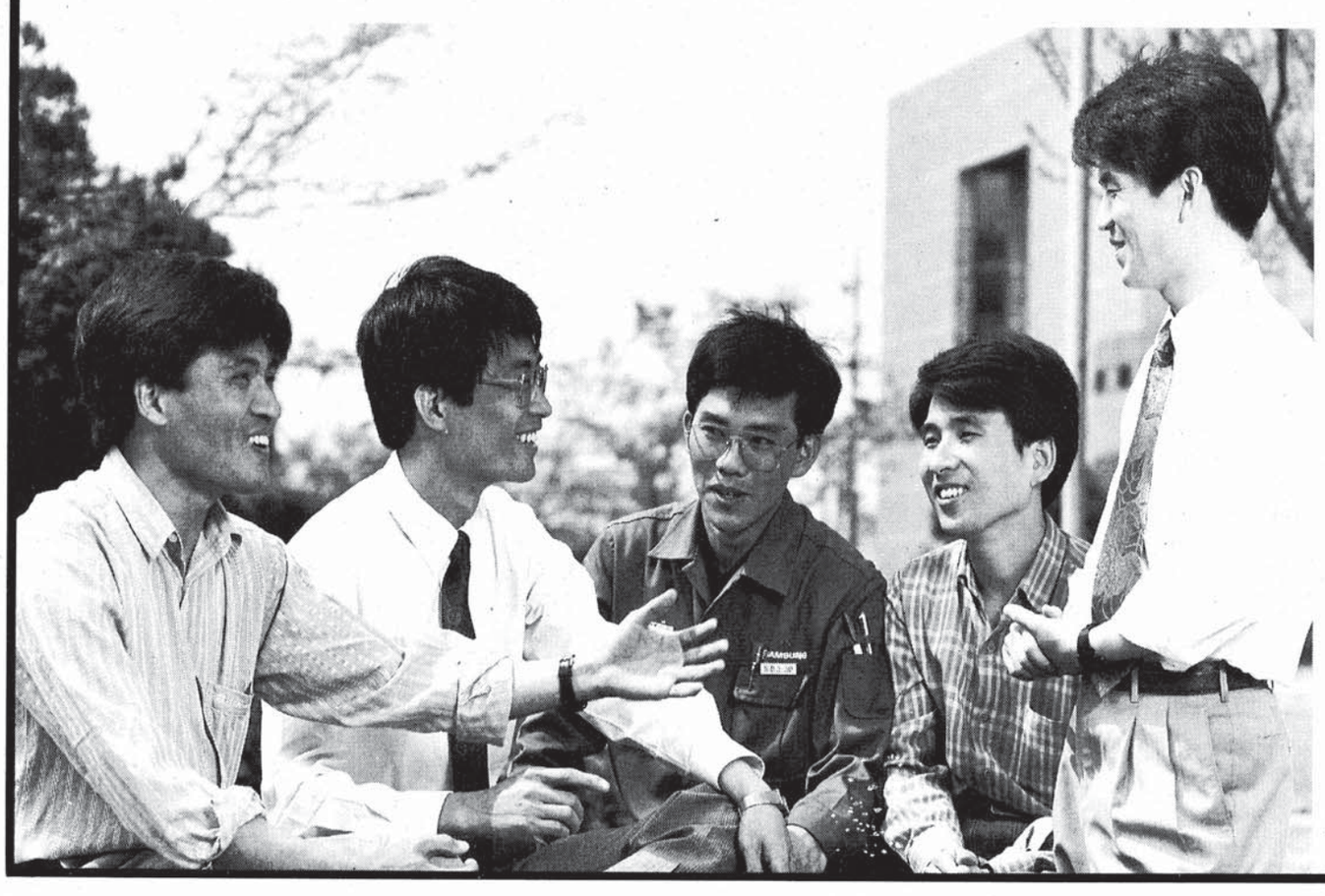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치관리 제도는 혹시 처음부터 자기모순적인 요소가 내장되어 있는 절충주의적 접근의 소산물은 아니었던가? 유고슬라비아의 경험이 국가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에 나서고 있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진정으로 시사하여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책은 찾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책은 노동자 자치관리 조직 내부의 권력구조, 그러한 권력구조를 빚낸 유고슬라비아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양식, 그리고 노동자 자치관리 제도의 이념적 특성 등을 검토해 나간다. 그리하여 노동자 자치관리 제도가 진정으로 노동자의 참여된 발언권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었나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발단과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규명해 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적 검증의 결과를 토대로 미시적 차원에서 노동자 자치관리 제도의 장래와 거시적 관점에서 본 자치관리 사회주의 체제의 앞날을 조망한다. 따라서 이 책은 국가론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의 모색에 관심을 두어 온 이나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극복방안을 천착해 온 이, 또는 국가 발전전략과 모형의 정립에 관심을 두어 온 이, 이념적 갈등과 간극의 시대를 막론하고 새롭게 전개되어야 할 인류 사회의 미래상에 흥미를 느껴온 이, 모두에게 사유의 지표와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값진 보고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 책은 저자가 오랜 동안 심혈을 기울여 쓴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최근의 동구권 변화 추이와 최근에 겪고 있는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의 역사적 배경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관심있는 학자, 상식인, 분야별 전문가 모두에게 필독을 권하지 않을 수 없다.

박재창 〈숙대교수·행정학〉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三星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던 그 순간이
또 하나의 기술의 벽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같다.
그 안에는 나의 지식, 사고하는 방법, 성격
그리고 희망같은 것들이
녹아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안에는 내일을 향한 나의 의지도
들어있기 마련이다.
일본이 고해상도의 수퍼 VTR을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후
그들은 그 기술을 극비에 포함시키고
외부에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았다.
21세기를 향한
이 세대의 마지막 VTR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첨단기술을 끝내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기술이
절대 성역일 수 없었다.
끊임없이 도전해 왔으나
간직할만한 성공이라고 여겨질 큰 성공이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고,
아마도 대학시절 때 부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두가 놀랄만한 또 하나의 새로운 나,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내놓고 싶다는 꿈을 실현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수퍼VTR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수평해상도를 400선 이상으로 높히는 것,
전혀 다른 성격의 회로부분과 기계부분을
결합시키는 것 등 숱한 난제들을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랬기에 연구과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의 기준도
엄격한 기술수준의 기준도
일본이나 그 누구가 제시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다.
어쩌면 이미 기술시혜의 대상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그 누구도 기술을 주지않는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와중이었기에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믿어준 회사의 과감한 지원은
기술의 벽을 넘는 하나의 도약대가 되어주었다.
결국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한 순간이
또 하나의 기술의 벽을 넘는 순간이었고
당당한 또 하나의 나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이었다.
지금은 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나를 꿈꾸고 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세계최초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나를 —

선임 연구원 강 구 호

일본 기술의 장벽을 넘어 수퍼 VTR을
독자 개발한 수퍼 VTR 개발팀
좌로부터 김봉수 주임연구원, 강구호 선임연구원,
김창식 연구원, 김종우 연구원, 전태선 주임연구원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날치기통과…응징대회' 개최

특별법 무효화 선포·노정권 화형식 등 가져

총학 민자당후보 낙선운동 펴기로

근 2년여에 걸친 도민들의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지난 12월 18일 밤 11시49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돼 특별법 반대투쟁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총학생회(회장 위성곤 원예4)에서는 지난 12월 18일 오후2시 민주광장에서 '특별법 무효화 선언과 강행통과 주범 노태우 정권 응징을 위한 청년 아라 결의대회'를 갖는등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투쟁방향, 특별법 무효화 선언, 노정권 화형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총학생회장은 '특별악법 날치기 통과 무효화 선언문'을 통해 "장기집권 음모인 제주도 개발 특별법 날치기 통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특별법 강행주범 노태우 정권 타도와 그 배후 조종자 미국 반대를 소리 높여 외치며 민주정부수립의 한길을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12월 19일 총학생회에서는 오후2시 민주광장에서 '특별악법 날치기 통과 주범 노태우정권 응징을 위한 청년아라 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오후 5시에는 범도민회 주최로 광양성당앞 삼거리에서 '특별법 제정 날치기 통과규탄을 위한 범도민 성토대회'를 가졌다.

또한 지난 12월 25일에는 범도민회 주최로 '고 양용찬 열사 49재 추모대회'가 제주교육대학 체육관 앞에서 4백여명의 시민과 학우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 행사는 고 양용찬씨가 지난 11월 7일 '특별법 폐기,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분신한지 49일째 되는 25일을 전후로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는데, 범도민회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종미술회관과 서귀포 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에서 비디오 상영 및 시·사진전 등의 행사를 가졌다.

◇지난 12월25일 범도민회 주최로 제주교대에서 있었던 고양용찬열사 49재 추모대회.

이 추모대회에서 시민과 학우들은 결의문을 통해 △열사정신을 이어받아 특별법 폐기, 무효화투쟁을 전개하고 △특별법을 날치기 처리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총선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양용찬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회의 발족 및 열사정신의 계승 등을 천명했다.

대회를 마친 2백여명의 학우들은 교대를 출발해 중앙로까지 촛불시위를 벌이려 했으나 사라봉앞 4거리에서 경찰에 저지당해 정리집회를 갖고 7시께 해산했다.

한편, 지난 9월 7일 도내 학계·종교계·농민단체·재야단체등 각계인사 6백20여명을 주축으로 결성된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회'는 지난 12월 18일 특별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자 12월 20일 범도민회 명칭을 '특별악법 폐기를 위한 범도민회(가칭)'로 바꾸고 특별법 무효화, 특별법 제정주범 응징, 도민생존권 쟁취 등을 역점으로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주지역 총학생회협의회 한 관계자는 "특별법 날치기 통과에서 정권의 비민주성이 여실히 드러 났다"고 전제, "특별법 저지투쟁은 이제 정권타도 투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14대 총선때 민자당 후보 낙선운동 및 범민주 후보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중 각종 특강 실시

전산교육

전자계산소(소장 강영주 교수 식품공학과)에서는 학생(92학년도 신입생 및 대학원생 포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월20일부터 1월31일까지 '91학년도 제2학기 전산교육을 실시한다.

우리학교 학생 및 교직원, 특히 '92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최신 정보기술의 습득과 컴퓨터 활용기회 확대, 컴퓨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전산교육은 1학기때 좋은 호응도를 보였던 'PC사용법 및 워드프로세싱' 강좌를 좀더 확대해 'PC첫걸음 및 MS-DOS(1월20일~1월31일)' '워드프로세싱응용(〃)'의 두 강좌를 나누었고, 'WORK SHEET (QUTTRO PRO) (2월10일~2월21일)'를 개설했으며 교육시간은 'PC첫걸음 및 MS-DOS'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산소에서 '워드프로세싱응용'은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전산소에서 'WORK SHEET'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사능 이용연구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전산교육은 이론강좌와 실습을 병행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학기와 마찬가지로 각 강좌마다 수강생수를 35명 이내로 제한해 20명 미만일 때는 폐강할 예정이다.

수강을 원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은 PC첫걸음 및 MS-DOS는 오는 1월3일부터 1월10일까지 워드프로세싱응용과 WORK SHEET는 1월27일부터 1월31일까지 전자계산소 교육연구부(본관 3층)에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각 강좌당 수강료 2만원, 디스켓 및 교재제공)

외 국 어

▲어학연구소(소장 양영수 부교수 영어교육과)에서는 1월3일부터 31일까지 외국어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의 개설과목은 '아카데미토플'과 '영어순해' 2과목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50분까지 강의하며 수강료는 강좌당 1만5천원이다.

기성회비 인상 협상 타결

작년比 9.5% 인상키로 합의

신입생등록금도 평균 7.5% 올라

'92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중 기성회비 인상문제를 놓고 지난 12월 13·20·21일 세차례에 걸친 학교당국과 총학생회간의 협상결과 작년과 같이 9.5% 인상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이에따라 '92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5%, 기성회비가 작년과 같은 수준의 9.5% 인상됨으로써 신입생 등록금은 작년보다 평균 7.5% 인상됐고 재학생의 등록금 인상률은 1월말 경에나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21일 학생처장실에서 열린 기성회비 인상 협상 회의에서 등록금 인상저지 투쟁소위원과 학교측 대표간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합의문을 채택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입생 등록금 인상안은 9.5%로 합의하지만 이후 재학생 인상안과 동등시 한다.

△학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수·교직원·학생이 같이 정기적으로 대화할수 있는 모임을 가지며 추후 발전적인 협의기구를 마련해 나간다.

△기성회비 편성에 있어 학생측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제공·설명해 준다.

△학생복지 측면은 추후 예산편성이전에 논의를 갖고 결정한다.

학교측이 제시한 기성회비 인상요인을 보면 신임교수 32명, 조교 5명, 채용기능직원 13명 증원, 장학금등 학생기준경비 인상, 학교기본설비 증가, 기성회 직원 처우개선 등인데 학교당국은 당초 13.2%인상안을 제시했었다.

'92학년도 총학생회(회장 윤철수 무역·4)에서는 등록금 인상저지 투쟁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지난 12월9일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부총학생회장, 정책국장, 총무부장, 인권복지위원회회원 2명등 5명으로 등록금인상 저지투쟁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한편, '92학년도 신입생은 농협중앙회북제주군지부 및 우리학교 출장소에서 오는 1월3일부터 8일까지 5일간(단, 공휴일 제외) 등록을 필해야 한다.

(표) '92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내역

( )안은 지난해 금액

계열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계
인문사회	95,000 (90,000)	208,000 (198,000)	349,000 (318,500)	6,000	658,000 (612,500)
이학체육	95,000 (90,000)	213,500 (203,500)	436,500 (398,500)	6,000	751,000 (698,000)
공학예능	95,000 (90,000)	227,500 (216,500)	466,000 (425,500)	6,000	794,500 (738,000)

대학원생 모집요강 확정

법·에너지공학과에 석사과정 신설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이 지난 12월18일 92학년도 대학원 학생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오는 1월3일부터 10일까지 각 대학원 교무과에서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한다.

각 대학원별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원=석사과정에 17개학과(법학과, 에너지공학과 신설), 박사과정11개학과 △교육대학원=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에 10개전공 △경영대학원=석사과정에 경영학과 인사관리등 7개전공 △행정대학원=석사과정에 행정학과 지방자치등 3개전공 등으로 각각 약간명씩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형시험은 1월17일 오전 10시 각 대학원 별로 영어, 전공, 면접 등에 걸쳐 실시된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영어·전공·구술시험외에 제2외국어(독어·불어·일어·중국어중 택1)를 추가로 전형하는데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자에 한하여 한문을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다.

또 교육대학원은 교직경력 5년이상인 현직 교원에 대해서, 행정대학원은 5급이상 공무원, 영관급, 경감급 이상, 군경찰공무원, 국·공영 사기업체 간부 등에 대해 특별전형을 한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과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 과정도 대학원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에 맞춰 원생을 모집하는데 1월20일 오전10시 각 대학원별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한다.

한편 합격자 발표는 1월24일 오전11시 각 대학원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本社辭令

수습기자

장신욱(사회 1) 김설(사학 1)

기자에 임명함.

1월1일자

'대학40년사' 집필위원 위촉

기획실(실장 부만근 교수 행정학과)에서는 개교40주년 및 종합대학 승격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주대학교 40년사』를 내년 5월27일 이전에 발간예정으로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2월 대학사편찬위원회(위원장 황언택 교수 영어교육과)를 구성했고, 11월말에는 집필위원 23명을 위촉해 집필을 의뢰하는 한편 집필에 필요한 자료수집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40년사는 대학 설립부터 종합대 승격이전까지의 제주대학시대(1952년~1982년), 제주대학교시대(1982년~1992년), 제주대학교의 미래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기획실에 의하면 특히 이번 발간될 『대학 40년사』에는 지난 82년도에 발간한 대학 30년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며, 종합대학 승격 이후의 성장과정과 발전된 양상을 충실히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황언택(영어교육과)교수 △위원 권인혁(대학사 편찬위원회 간사, 사학과)부교수, 고남욱(경제학과)교수, 김항원(사회교육과)부교수, 강태숙(축산학과)교수, 고유봉(해양학과)교수, 오문유(생물학과)교수, 송대진(식품공학과)교수, 부만근(행정학과)교수

▲집필위원

김병택(국어국문학과)부교수, 강영봉(국어국문학과)부교수, 고경환(영어영문학과)부교수, 권인혁(사학과)부교수, 부만근(행정학과)교수, 장성수(관광경영학과)부교수, 고남욱(경제학과)교수, 김태보(경제학과)부교수, 양순필(국어교육과)교수, 황언택(영어교육과)교수, 김항원(사회교육과)부교수, 송성대(사회교육과)부교수, 고성준(국민윤리교육과)교수, 박규은(과학교육과)교수, 문두길(원예학과)교수, 김규일(축산학과)교수, 강경선(농업경제학과)교수, 고유봉(해양학과)교수, 오문유(생물학과)교수, 양영오(수학과)부교수, 송대진(식품공학과)교수, 김혜우(부속고등학교)교사.

박물관장 새로 임명

신임에 이청규교수

강통원 박물관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 후임에 이청규(사학과)부교수가 지난 11월 27일자로 임명됐다.

이번 박물관장에 임명된 이교수는 '93년 11월26일까지 박물관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77년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졸업 △78년 서울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삼성미술문화재단 호암미술관 학예연구원 △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석사 △81년~84년 서울대, 서강대, 인하대, 한신대 시간강사 △84년 제주대학교 사학과 전임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박사과정 이수중.

金昌中교수 별세

지난 18일 밤에 암으로

金昌中(향년 46세 경제학과)부교수가 지난 12월18일 21시 30분 지병인 암으로 자택에서 별세했다.

제주시 이호2동이 고향인 金교수는 69년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 80년 건국대에서 "특수강의 수요구조 분석 및 예측"으로 경제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박사학위 논문 마무리도중 병을 얻어 지난해 부터 투병생활을 하였다.

우리학교 감단에는 82년부터 서기 시작해 수리경제 및 농업경제 분야의 다수 논문들을 남겼다.

金교수에 대한 영결식은 12월 22일 오전 10시 야외음악당에서 있었으며 장지는 아흔아홉골 가족공동묘지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인씨와 1남2녀가 있다.

아라·我羅

○…언론이여, 수면제가 되지 말지어다.

특별악법이 통과되었다는 비보에 제주도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이에 한술 더 떠 세뇌공작까지 펼치고 있는 자칭 민주(?)언론!

지난 12월22일(일) KBS1TV에서 재방영된 프로의 내용에서 도지사 및 일부인사의 말을 빌면 '특별법이 악법이라고 규정지어 놓은 사람들에 의해 특별악법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정부측의 입장만을 감언이설로 도민들에게 홍보해.

민중을 일깨워야 할 언론이 오히려 민중의 의식을 영원히 잠재울 수면제가 되려하는 것은 아닌지. 아라子. 심히 격정되오.

○…도민을 위한 악법(?)

55만 제주도민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주도민의 제주도민에 의한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는 기쁜소식 아닌 기쁜소식!

도민을 위한 특별법이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 12월8일 밤11시46분 10여초만에 날치기 통과, 진정 도민을 위한 법(?)임을 확인.

힘없는 제주도민의 절규와 분신자살에도 불구, 악법 통과에 애쓰신 민자여러분께 55만도민이 삼가조의를 표하며 재배드립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요즘 범국민적으로 30분 일더하기 운동이 한창인데.

재벌과 몇몇 큰손들이 우리나라 경제급성장에 불안을 느껴 과소비·투기로 경제를 안정시킨다고.

국민들이 30분 더 일해 이룬 경제성장을 재벌은 사리사욕을 위해 경제를 혼란시키는데 30분 일더하기운동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지.

○…우리학교 자린고비 이야기

누구를 위한 절전인가.

11월말경부터 캠퍼스에 있는 모든 가로등이 밤이 되어도 점등되지 않아 도서관등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는 학우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고.

절전을 중시한 당국의 처사도 좋지만 정말 절약절전해야 할 곳이 따로 있지 학우들에게 불편·위험을 주는 절전을 강행해서야….

하나씩 건너서 가로등 점등운동을 하든지 뭔가 효율적인 학교당국의 절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우리손으로 우리 후배를

학생들이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했노라는 경상대 교무과의 연락을 받고 엉겁결에 경상대로 달려갔더니.

대입학력고사를 치르기 위해 강의실의 책상을 정리하는데 '92년 경상대 학생회에서 경상대 고사실의 책상을 정리하는데 솔선수범.

고사실 정리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후배를 맞는 선배의 자세를 갖춰나가야 할 때인 듯.

○…노대통령의 실수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2월19일 핵부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나 사인이 안맞은 탓인지 부시는 지난 21일 한국핵부재 확인을 거부했다는데….

물렁물렁한 물태우 역할을 다시 한번 톡톡히 해낸듯.

즉 미국의 전술핵 제거발표에 따라 어줍잖게 핵부재선언을 한것이 그것.

아직까지도 노대통령의 "믿어주세요"를 믿는 사람이 있을지….

언론이여 각성하라

도내 최초의 정보처리요원전문교육기관

컴퓨터 • 프로그래밍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키펀치기능사

제105기 개강:1월3일(금) 1월학기 수강접수!! (공휴일도접수)

• 제12차 교육실습기자재 컴퓨터 도입
최신 SOFT WARE 1,000여종보유 실습실 공휴일도 개방

— 1992년도 정보처리국가자격시험정보 —
(12월26일부터 본학원에서 자료무료제공)

(•)전문전산인 양성교육 (•)국가검정대비!! (•)유능한 강사진!!

• 문교부장관 표창수상!
• 서울중앙전산학원과 자매결연 교육정보교환!
• 제주지역 정보처리기사 합격자중 절대다수 본원출신
• 한국과학기술원시스템 공학센터 전산교육수료자
• 기사 1급 다년간 강의경력자
• 서울중앙전산학원 강사연수 수료자
• 대학원 석공자

• 기사1급 필기대비반 • 기능사1·2급 필기대비반 • 메크로어셈블러
• 기사2급 필기대비반 • AUTO CAD(새벽) • 기사1·2급실기대비반 개강!!

◎ 프로그래밍 정규교육과정
• EDPS개론 • Fortran - I, • Fortran II, • COBOL - I
• COBOL - II, • Assembly, • O J T(시스템분석및 설계 실무)

◎ 프로그래밍전문교육과정
• G/W BASIC - I • G/W BASIC - II • 파스칼 • C언어 - I, II

◎ 프로그래밍 특별교육과정
• 기사1, 2급 필기 실기대비 • 기능사 1, 2급 필기 실기대비 • 전자계산일반
• AUTO CAD • 메크로어셈블러 • 유닉스(제닉스)(공무원시험대비)

◎ 사무자동화(OA) 교육과정
MS-DOS→ • 워드프로세서 • 로터스및 심포니 • d'BASE→

◎ 마이컴(BASIC) 교육과정
• 국교(초급, 중급, 고급,특별) • 고교생반 • 중학생반

◎ 키 펀치(엔트리)과정
한글, 영문, 숫자 키펀치완벽실습 • 최신 워드프로세서 완비교육
• 마이컴 조작실습(1인 1대시스템 운용교육)

컴퓨터교육의 명문
한양컴퓨터학원
위치 중앙여중 서사라입구건너편 ☎52-1729~30 22-2709 FAX58-1151

컴퓨터 개강!
1월 6일(月)
온풍기 가동중!

• 도내 최초 AT전용·강의실 운영
• 'C' 강좌개설 • W/P(한글 및 하나)

교실 / 강의시간	제1교실	제2교실	제3교실	제5교실	제6교실	제7교실	제8교실
9:30~10:50	C	FORTRAN	ASSEMBLY	dBASE	COBOL-Ⅱ	BASIC-Ⅰ	MS-DOS
11:00~12:20	Word-Processor	COBOL-Ⅰ	기사실기대비	BASIC-Ⅱ	EDPS 개론	BASIC-Ⅰ	MS-DOS
1:40~3:00	어린이 MS-DOS		BASIC-Ⅰ	어린이 중급		고급Ⅰ	어린이 고급Ⅱ
3:10~4:20	어린이 dBASE		어린이2급	어린이중급	어린이고급Ⅱ	MS-DOS	BASIC-Ⅰ
4:40~6:00	C		어린이고급Ⅱ	어린이초급	ASSEMBLY	MS-DOS	BASIC-Ⅰ
6:10~7:30	dBASE	COBOL-Ⅰ	BASIC-Ⅱ	MS-DOS	EDPS개론	MS-DOS	BASIC-Ⅰ
7:40~9:00	BASIC-Ⅰ	FORTRAN	기사실기대비	LOTUS	COBOL-Ⅱ	Word-Processor	MS-DOS

월드컴퓨터학원
위치 : 중앙로 주택은행뒷길 아세아탁구회관
전화 : 52-3321, 57-6878

합격선, 작년보다 평점 23점 상승

신입생 비율 男 53.4%·女 46.6%

전체수석에 수교지원 강미현양 차지 307점 얻어

'92학년도 우리학교 신입생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평균 23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단과대학 54개학과(야간강좌부 포함)에서 총 1천9백20명 모집에 5천8백67명이 지원해 지난해 3.33대1의 경쟁률보다 다소 낮은 3.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전체 수석의 영광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지원한 강미현(제주여고=총점 5백66점 만점에 5백31.8점 취득- 학력고사 3백7점, 고교내신 1등급)양이 차지했다.

특히 신입생선발고사에서는 학력고사점수 2백80점대 이상 고득점자가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수석의 경우는 학력고사 점수가 3백점대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리학교에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각 단과대학별 수석합격은 △인문대학=영어영문학과 김이선(제주여고)양 △법정대학=행정학과 오상진(제주사대부고)군 △경상대학=경영학과 김인훈(오현고)군 △사범대학=수학교육과 강미현(제주여고)양 △농과대학=수의학과 정연희(제주여고)양 △해양과학대학=해양토목공학과 송혜금(제주사대부고)양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김미숙(서귀포여고)양 △공과대학=정보공학과 홍성무(오현고)군이 각각 차지했다.

남자수석인 경우는 역시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지원한 문정훈(남녕고=총점 5백66점 만점에 5백16.4점 취득-학력고사 2백95점 고교내신 2등급)군이 차지했다.

이번 신입생 합격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졸업연도별로는 92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79% 재수생은 20.9% 기타 0.1%이고 남녀별로는 남학생이 53.4%, 여학생이 46.6%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합격자들은 오는 1월3일부터 8일까지 5일간(공휴일제외)농협중앙회 북제주군 지부나 우리학교 농협출장소에 입학등록을 마쳐야 한다.

〈표〉 '91학년도 신입생 남녀 지원별 합격현황

대학 \ 성별	지원자수		합격자수		당해년도 졸업생수		재수생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문	280	912	71	279	49	226	22	53
법정	235	187	83	57	38	38	44	19
경상	442	517	114	146	74	123	40	23
사범	39	90	30	80	24	71	6	9
농과	740	342	174	66	141	59	33	7
해양	523	108	163	27	136	27	27	0
자연	437	285	137	133	95	125	42	8
공과	528	202	254	106	193	98	61	8
계	3224	2643	1026	894	750	767	275	127

공로 표창장 받아

종무식서 진찬경씨등 5명

1992년도 시무식이 오는 1월3일(금) 오전 10시 2동 중강당에서 거행된다.

김형옥 총장, 4개 대학원장, 12개 학·처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시무식에서는 공무원 윤리헌장 낭독, 신년사, 신년인사 교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구랍 31일 12시에는 법정대 중강당에서 1991년도 종무식이 있었다.

이날 종무식에서는 진찬경(사무국 시설과 기능직 10등급 전기원)씨, 이상형(도서관 기능직 10등급 기계원)씨, 김길수(사대부고 기능직 10등급 위생원)씨, 정수진(사무국 총무과 기능직 10등급 방호원)씨, 임달삼(인문대학 서무과 기성회직 이종위생원)씨등 5명이 총장표창을 받았다.

미술관 신축 기공식 가져

지난 12월4일 도서관 동쪽 현장서

미술관 신축 기공식이 지난 12월4일 김형옥총장을 비롯한 교수·교직원·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동쪽 현장에서 있었다.

공사비 총 11억6백90만8천원(음악관 공사비 포함)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을 총 2천8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 신축 미술관은 오는 94년 완공 예정이다.

신축될 미술관의 설비계획을 보면 지하 1층은 대피소와 창고가 들어서고 지상 1층은 소묘실 1개, 시청각실 1개, 서양화실 4개가 들어서며 2층에는 교수실 9개, 모델실 1개, 한국화실 1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건축시공자는 주식회사 삼오건설(대표:임제호)로 결정됐다.

관광통역·수산양식 기사시험등서 학우 22명 합격

지난해에 우리학교 학우들이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증 취득시험에서 22명의 학우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지난 11월3일 발표한 관광통역안내원(일본어) 시험에서는 관광경영학과 고덕윤·부혜경·오경애(이상 4학년)학우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수산양식기사 1급 자격증 시험에서는 증식학과 김근태·곽종주·김성훈·배희찬·서명배·고경호·오상필·오동훈·박시정·황형규·고민수·부상돈·이애덕·강란·공정은(이상 재학생)·김지택·고경철·변수철(이상 91년 졸업생)등 18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숙경 학우 경기상 수상 임관철 학우등 3명도 우수선수상 받아

지난 12월23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체육유공자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에서 체육학과 라숙경(2)학우가 경기상을, 임관철(2)·김태헌(1)·정재봉(1)학우가 우수선수로 뽑혔다.

이번에 경기상을 받은 라숙경학우는 제63회 동아수영대회에서 다이빙 경기 스프링보드 부문 1위, 제7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스프링보드 부문 3위, 플렛포옴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우수선수로 뽑힌 임관철학우는 제45회 전국 남녀대학생 육상경기 겸 91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선수 선발대회에서 1백m허들 1위. '91전국종별육상선수대회서 4백m허들 2위, 제25회 도민체육대회서 2백m 1위·4백m 1위·4백m계주 1위, 대통령기 제19회 국립대학교 체육대회서 1백m 3위, 제72회 전국체육대회서 4백m 3위·1천6백m계주 3위, 제46회 남녀대학육상경기 선수권대회서 4백m계주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정재봉 학우는 대통령기 제19회 국립대학교 체육대회서 5천m 2위를 차지했고, 김태헌 학우는 대통령기 제19회 국립대학교 체육대회 원반던지기 부문에서 1위, 제46회 전국 남녀대학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도 원반던지기 2위에 입상한바 있다.

제주도문화상 수상 이선문교수·김용길同門

◇이선문교수

지난 12월27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거행된 제주도문화상 시상식에서 이선문(음악학과) 부교수와 김용길(국문 14회졸)동문이 '91년도 예술부문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했다.

예술부문 수상자인 이교수는 제주의 열악한 음악환경 개선과 창작 및 공연등 음악발전공로로, 김동문은 제주적인 시상표현과 탁월한 문학성을 인정받아 도문화상을 수상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들하르방

'포테이토 칩'즐기는한 희망은 없다

누구나 어렸을 적 이런 추억쯤은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사탕과자를 많이 먹어 까맣게 벌레먹은 충치를 치과에서 혹은 집에서 실로 동여메고 뽑아낸 후 아무렇게나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다 힘차게 던지면서 "묵은 이는 가고 새 이는 돋아나라"라고 빌던. 앓던 이를 뽑아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곧고 예쁜 새 이가 돋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치르는 이러한 의식(?)은 미신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너무나 소망적이며 순수하다.

이제 한 해도 묵은 해로서 저물어가고 있고, 새 해를 맞아야 할 때다. 이맘때면 아쉬움과 꿈틀거리는 희망이 교차하면서 지난 한해를 반성해 보게 되지만 늘 결론은 '아쉬움'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일을 그르친 것을 떠올리게 되고, 시간분배를 잘 못하여 헛된 시간을 늘리게 된 점 등을 생각하면서 '잘 할 수 있었는데'라는 푸념을 늘어놓기 일쑤다.

신미년 지난 한해는 흔한 말로 '다사다난'했었다. 일부 대학의 입시부정사건·수서지구 특혜분양·국회의원 뇌물수수·강경대군 타살사건과 전염병처럼 번진 분신·외국어대 정원식총리 계란세례·광역의회선거의 민자당 압승·대학평가인정제와 정부의 학원안정화 대책·야권통합·전국연합 발족·특별법저지 투쟁과 국회의 법안 날치기 통과 등은 강의실에서 혹은 거리에서 권위적이고 부패한 정치와 경제적 모순구조의 압력속에서 현실의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하였던 변수로 작용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일들속에서 파급을 받고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으로 희열과 아픔을 맛보아야 했었다.

좁게 학내에서도 대학발전기금 모금운동이 펼쳐지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에 있지만 마무리가 미진하고, 대학본부나 학생자치기구별로 아직도 미숙하고 완결짓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한 채 해를 넘기고 있어 새해를 맞는 기분이 그리 기쁘지 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실수와 아쉬움의 맞부딪침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새로운 방법론과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후회로 과거를 한탄하거나 그리워하기 보다는 오늘의 내일을 생각하며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설계를 하고 '희망'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흔히 요즘의 젊은 세대들의 생활태도를 가리켜 '카우치 포테이토(Couth-Potato)'라 부른다. 이말은 카우치(긴 소파)에 앉아 포테이토 칩스를 즐긴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로 개인주의와 자유를 극단적으로 존중하는 고도산업사회에서 활자매체에 약하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며, 직장근무나 교과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안에서 혼자 텔레비젼, 오디오, 비디오등을 즐기는 생활습관을 풍자하고 있다.

묵은 해와 새 해 얘기를 하면서 난데없이 감자를 들먹이는 것은 새해에는 이처럼 무기력하고 나태한 모습을 자제하자고 당부하고 싶어서이다.

임신년 새해에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기대되며 4대선거가 치뤄지는 것외에 예상치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TV를 보며 포테이토 칩스를 즐기는 일상에 젖은 태도로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에 대해 저항력을 키울 수가 없다.

적극적인 사고와 실천적인 행동만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연말이면 쌓이는 후회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甲】

와라광장

교수동정

▲윤양수(법학과)부교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신설 준비위원에 위촉.(위촉기간=91.12.1~92.2.29)

▲이윤준(에너지공학과)부교수=대학원 에너지공학과 석사과정 신설 준비위원에 위촉(위촉기간=91.12.1~92.2.29)

▲유장걸(농화학과)교수=대학원 농화학과 주임교수에 임명.(임기=91.12.1~93.11.30)

▲곽이부(일어일문학과)부교수=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신설준비위원에 위촉.(위촉기간=91.12.5~92.2.29)

▲윤석산(국어교육과)조교수=사범대학 교무과장에 임명.(임기=91.12.12~93.12.11)

▲강근형(국민윤리교육과)부교수=사범대학 학생과장에 임명.(임기=91.12.12~93.12.11)

▲김태곤(국어교육과)부교수=사범대학 국어교육과장에 임명.(임기=91.12.12~93.12.11)

▲김승한(일어일문과)조교수=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장에 임명. (임기=91,12,8~93.12.7)

▲고원희(독어독문학과)교수=인문대학장에 임명.(임기=91.12.11~93.12.10)

▲박규은(과학교육과)교수=사범대학장에 임명.(임기=91.12.11~93.12.10)

▲한창영(행정학과)교수=지난 12월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사회를 봄.

▲정대연(본사주간 사회학과)부교수=지난 12월5일부터 7일까지 서귀포 KAL호텔 1층 크리스탈 룸에서 열린 전국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회 동계세미나에 참석.

▲문두길(원예학과 교수)학생처장=지난 12월4일부터 6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에 참석.

▲김형옥총장=지난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협의 및 국립대 총장회의에 참석, 12월6일부터 7일까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회의에도 참석.

▲이준백(해양학과)조교수=오는 1월4일부터 93년 1월3일까지 영국 런던대학에서 열리는 해외 포스트닥(Post-doc)연수를 위해 영국에 체류.

▲강정숙(식품영양학과)전임강사=91년12월27일부터 92년 1월21일까지 한림대 및 이화여대에서 기기활용방법을 배우기위해 연수.

▲고성택(전자공학과)전임강사=지난 12월13일 우당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보통신 지방화 촉진과 체신관서를 통한 이용학대에 관한 연구 발표회'에서 "정보통신 지방화 촉진에 관한 연구논문"발표.

▲문건(통신공학과)조교수=지난 12월13일 우당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통신 창사 10주년과 제주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 결성 기념 '정보통신 지방화 촉진과 체신관서를 통한 이용확대에 관한 연구발표회'에서 "체신관서를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발표

▲백자훈(원예학과)교수=도교육위원회의장 자격으로 지난 12월13일 오전 11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위 의장단 회의 참석.

▲김태보(경제학과)부교수=지난 11월28일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역경제활성화 연구보고회에서 "제주지역 경제의 특성과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

▲고성준(국민윤리교육과)교수=12월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대학이념교육 전국교수 세미나'에 참석.

▲김수종(영어교육과)교수=오는 1월4일부터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1년간 연수. 또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사범대학장 자격으로 중등교원공개채용에 따른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방문.

▲고정삼(농화학과교수)공동실험실습관장=지난 12월2일부터 4일까지 전국 공동실험 실습관 현황 파악 위해 이도.

'핵기술…워크숍' 개최 방사능 이용 연구소서

방사능이용연구소(소장 김재하 교수 식품공학과)에서는 지난 12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2회 핵기술의 생명학적 이용에 관한 워크숍'을 가졌다.

생명과학분야에 핵기술 도입을 소개하고 우리학교에서의 연구활성화를 꾀하고자 가진 이번 행사에서는 유장렬(과학기술원)박사의 "유전공학의 식물유전학적 응용", 유장걸(농화학과)교수의 "식물 pro·toplast분리 및 전기융합(이론)" 야마모토(동북대)교수의 "유전공학의 기초 및 현황과 미래", 김찬식(농화학과)전임강사의 "Expression of clonedgene in E.coli"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식물 DNA 분리 및 전기영동 proto plast분리실습 등이 있었다.

'정보확산…강연회' 정보공학과서 개최

정보공학과에서는 '제주지역 정보문화확산을 위한 특별 강연회'(사업책임자 김장형 부교수 정보공학과)를 지난 11월30일 오후 2시 제주시내 우당도서관에서 가졌다.

제주 체신청과 제주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는 안기중(정보공학과)전임강사의 국가기관 전산망 요지설명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 도민의식조사 평가', 양남국(한국통신 제주 사업본부장)씨의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 조일헌(데이콤 제주사무소)씨의 '일반사업체의 국내 PC통신 사업현황'등의 강연이 있었다.

시설감귤세미나 원예학과 서귀향우회

▲원예학과 서귀포시 향우회(회장=강행돈) 주최 '시설감귤세미나'가 지난 12월22일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서귀포 농협회관 2층에서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우스 재배시 온주밀감의 화아분아 형성에 관한 소고"(연사=김창명 농업연구사, 제주도농촌진흥원), "감귤시설재배에서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양수분 관리"(연사=현해남 조교수, 농화학과), "하우스감귤의 생산과 소비동향"(연사=양창식협회장, 남제주군 시설감귤협회), "하우스감귤 재배현황과 전망"(연사=송창훈국장 제주도 농촌진흥원) 등 4편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최치규교수 특허받아 '반도체…'으로

최치규(물리학과)부교수가 "반도체 장치의 Epitaxial층 형성방법"으로 지난해 10월말경에 상공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특허 출원번호 91-18985)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노조 발전기금 기탁 지난20일 90여만원

우리학교 기성회 직원 노동조합(위원장 김수남)에서 대학발전기금으로 90만5천2백원을 기탁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학 구성원의 일원으로 근무하는 기성회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조합운영비의 일부를 대학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것.

기금은 지난 12월20일 노동조합을 대표해 김수남 위원장, 양복송 부위원장, 김은욱 사무국장이 김형옥 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발간소식

▲학생생활연구소(소장 이순형 교직과 교수)에서는 지난 12월2일 『아라인』제8호를 발간했다.

▲증식학과 학생회(회장 이정훈·3)지 『아등터』 제3호가 지난 11월 21일자로 발간됐다.

▲해양환경공학과 학생회(회장 조재권·3)지 『PPM』 창간호가 지난해 12월경에 발간됐다.

▲해양토목공학과 학생회(회장 고길용·1)지 『새롬』 창간호가 12월 초순께 발간됐다.

▲화학과 학생회(회장 강동완·3)지 『NUCLEUS』 제12호가 11월 중순경에 발간됐다.

바로 지금입니다.
좋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랑, 학문, 사상, 방황에 이르기까지
바로 지금 뜨겁게 빠져들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대학시절은 단 한번밖에 없는,
황금과도 같은 4년간의 휴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4년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써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흔히 젊은 지성을 일컬어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식어버린 가슴과 텅 빈 머리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죽이고 있지나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꿈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꼬박 새워도 좋습니다.
잔디밭에 하루 종일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술잔을 붙들고 누군가와 토론에 몰두해도 좋습니다.
바로 지금, 삶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당신의 뜨거운 정열을 보태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보통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있는 인간은 시간을 이용하는데 마음을 쓴다.」

작은 꿈도 소중히 하는 —
국민은행

제11회 백록학술상 주제논문 부문 가작

제주도 중산간지대 개발의 방향

1. 지역개발인식의 전제

지금은 화려한 수식어—'환상과 남만의 섬', '극동의 하와이'—등을 연상케 하는 한반도의 최남단 제주도. 궁핍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지난날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60년대초 5·16쿠데타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곳이다.

크기라고 해봐야 전국면적의 1.84%(5억5천여만평)밖에 되지 않으며, 51만7천여명(89년 현재)의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자그마한 섬이 중앙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속에서 눈부신 양적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지난 30년동안 15차례의 개발계획이 입안,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지역개발은 개발계획의 추진실적 향상에 급급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소홀히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흔히들 지역개발을 '지역의 발전에 장애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행위'라고 한다. 학자들간에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지역개발정책은 지역실업의 해소, 지역간 소득격차의 완화, 공간구조의 개선, 지역간 주민생활복지수준의 균등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지역개발은 계획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의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60년대 이후 국토개발계획 혹은 지역개발계획이 입안·정책화되어지고, 이들 정책은 국가경제성장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저농산물가격정책을 통한 산업예비군창출과 저임금정책)이 되어서 눈부신 양적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토개발계획 혹은 지역개발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계획의 중앙집중성, 계획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외부인(중앙관료, 외부전문가등)들의 독점, 투자자본의 외부조달등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외부주도적인 개발이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개발계획의 문제점으로서는 계획의 비밀주의에 의한 일부 외지인의 개발정보독점과 이에따른 토지투기, 지역의 실정에 맞지않는 개발계획의 수립·집행,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역문화재와 자연의 파괴, 개발이익의 누수 등을 들 수 있다.

제주도 지역개발의 형태를 살펴보더라도 중앙정부 주도하의 '하향식 지역개발'이 안고있는 모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제주도 지역개발은 제주도의 외형적 성장에만 기여했을뿐 주민들의 복지향상에는 소홀히 해왔다.

특히 6,70년대초까지 중앙정부가 1차산업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지역주민들보다는 외지인들이 차지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투자한 자본이상의 잉여가치를 창출하려는 외지인들의 '자본의 논리'가 중앙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맞물려 제주도를 향락, 소비지향적 관광지로 탈바꿈시켜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중앙정부 주도하의 지역개발이 국가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진 연유로 하여 각 지역의 특수한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역개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기존의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지방화·분권화·상향적 의사전달체계에 의한 지역개발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며, 중앙정부는 지역간의 분쟁조정과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개발을 지원하려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필자는 지역개발을 "어떤 한 지역내에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하는 모든 가치창조 행위"라고 규정짓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규정에 의거하여 지역개발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럴때만이 그동안의 외발적·하향적 지역개발의 폐해—토지투기, 지역주민소외, 환경오염 등—가 사라질 것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참다운 지역개발이 정착될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제주도개발은 해안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 중산간지대개발을 가속화해 나가려는 움직임—96년까지 10개 이상의 골프장 건설계획, 사파리등 대규모 위락시설설치계획 등—이 보이고 있어서 제주도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산간지대의 개발현황과 바람직한 개발방향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주도의 지대별 구분

제주도는 고도 1천9백50m의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는 원추형의 화산고도로서 자연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열대에서 고산대에 이르는 동심원적인 식생분포,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고 있는 환상형 정주체계, 작물재배의 지역적 분화등 지역적으로 강한 동질성을 갖는 특이한 지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내에는 예전부터 지역을 표고에 따라 해안지대, 중산간지대, 산간지대의 3지대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왔다. 특히 60년대 이후 제주도 지역개발이 시작되면서 각종 계획에 실무적 차원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지대별 경계구분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서는 85년에 확정·시행되고 있는 '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지대구분, 즉 해안지대 —2백m이하, 중산간지대 —2백~6백m, 산간지대 —6백m이상—의 지대로 편의상 나누고자하며, 각 지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1) 해안지대

도서를 포함하여 해발 2백m까지의 1천5.55㎢ (전체면적의 55%)로서 현재 90%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경지(전체 농경지의 83%)와 해안절경, 숙박시설, 중문관광단지등의 관광자원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지대다.

경사도 5도 이하의 평지로서 아열대성 식생이 생장하고 있고 수자원으로는 지하수(전체 지하수 이용량의 98%)와 용천수가 풍부하다. 토지는 취락 및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내 정치·행정·경제·문화등 모든 생활의 중심지로서 주거밀집지역이다.

지난 30년간의 지역개발은 관광개발중심이었으므로 해안경승지, 지방유적지, 수자원이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육지부와의 교통편이 발달한 해안지대가 주개발대상지역이었다.

2) 중산간지대

해발 2백~6백m까지의 5백77.0㎢ (전체면적의 31.5%)로서 인구의 약 10%, 전체농경지의 17%, 그리고 제주도 특유의 자연초지 및 영구방목지의 대부분과 기생화산인 '오름'이 대부분 분포해 있어서 가장 제주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경사도는 5~15도내외이며, 용암지대로 온대성 활엽수와 상록수가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토질은 척박하고 삼투성이 높아 용수가 부족하다.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고, 중산간우회도로(제2우회도로), 동·서부산업도로와 축산도로 등이 포장·정비되어 있어서 중산간의 초지를 이용할 경우 개발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

3) 산간지대

해발 6백m이상의 지대로서 2백46.02㎢ (전체면적의 13.5%)의 면적에 경사도 15도 이상으로서 한라산 국립공원(1백52㎢, 전체면적의 8.35%)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토지는 산림 및 국립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직적 식생분포에 의한 고산식물이 생장하고 있다. 또 소규모의 자연취락과 특수보호지역관리를 위한 취락이 있을 뿐이다. 천백도로, 5·16도로, 1,2산록도로가 포장 또는 포장중이어서 개발가능성이 가시화되어지고 있다.

3. 제주도 중산간개발 계획의 기조

1) 개 요

제주도는 아열대성 기후와 풍부한 강우량 그리고 맹수가 살지 않아서 예로부터 축산의 최적지로 알려져 왔다. 고려사에 의하면 탐라의 시조들이 오곡을 심고 구독을 키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제주도의 축산은 개벽 당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토산에 우마를 방목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축산은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신라, 백제와의 주요 교역물이 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원나라가 제주도를 지배하면서 군마의 생산지가 되었다.

이처럼 제주도가 마소의 사육지로 각광받게 된 이유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분포되어 있는 광활한 초지의 잠재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산간 초지의 총면적은 약6만ha에 달하며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마소의 사육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중산간지대의 초지는 이조시대 때 이미 13개소장으로 구분되었고, 산림과 인접된 지역에 상장성을, 경작지와 인접된 지역을 하장성으로 하여, 경지와 산림지를 엄격하게 구분, 마소의 방목을 체계화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구분되었던 제주도의 초지는 일제시대에 이르러 이의 구분을 행정단위별로 하여 총 1백12개 마을공동목장으로 형성시켜 운영할 수 있는 목장체계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중산간지대에 개발의 역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마소의 사육, 즉 축산에서 출발하였다. 척박한 토지위에서 그나마 제주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서있던 중산간지대가 지난 48년 4·3이라는 뼈아픈 역사적 현실속에서 중산간지일대에 소개령이 내려지자 마을은 폐촌이 되고 토지는 황폐화되어 중산간지대의 개발은 잠시 정체되었다.

하지만 5·16군사쿠데타 이후 중앙정부가 중산간지대에 대한 도로, 용수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초지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중산간지대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공간적 격리성과 폐쇄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궁핍과 착취'의 역사로 점철되어져 왔던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강 동 우
행정학과

이속에서 중앙정부는 제주도를 중요시하며 각종 '지역개발계획(안)'을 전개하였고, 특히 중산간지대에 있어서는 개발에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는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62년 제주~서귀간 전장 41.2km의 5·16도로개통, 66년 아라동~아라동간 전장 1백75.6km의 중산간우회도로 개통, 69년 제주~중문간 전장 37km의 천백도로 개통 등)확충, 용수(어승생수원지 69년 10월 완공)확충을 시발로 하여 중산간의 광활한 초지를 이용하는 축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들을 진행시켰다.

이러한 제주도지역개발계획상의 중산간지대 개발계획을 시기별로 살표보면,

2) 60~70년대=66년 제주도특정지역계획, 68년 제주도중산간종합개발계획, 73년 제주도관광개발종합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계획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유휴토지개발을 통한 축산진흥 및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특히 73년의 제주도관광개발종합계획(청와대 관광기획단에서 작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10년의 계획기간(73~82년)에 중산간우회도로 확장·정비, 서부축산관광도로(한림~창천) 25km개설, 동부축산관광도로(평대~교래) 27km개설등 도로 확·포장사업과 어승생, 성판악수원개발사업, 지하수개발(1만5천m³ /일)사업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농지 5천ha개간, 초지(개량초지 2만1천8백10ha, 간이초지 2천ha등)약 2만4천ha를 조성하며, 산악관광지(산굼부리, 성판악, 관음사 등)와 목장관광지, 문화관광지(성읍민속마을)등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 80년대=82년의 중산간도로권역종합개발계획과 85년의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들 수 있다. 특히 체계적인 지역개발계획이라고 하는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면, 7년의 계획기간(85~91년)에 동부(제주~표선 35.4km), 서부(제주~대정 29.5km)산업도로와 중산간우회도로 확·포장사업 등 도로확충계획과 열안저수지, 어승생하류저수지 등 용수확충계획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농지 5천ha개간사업과 초지 1천ha를 새로이 조성하고 송당지구(산굼부리, 만장굴포함), 산천단, 우보악, 무수천등지에 숙박시설, 골프장 청소년야영장 등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4) 90년대=제2차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89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계획을 마련중임)을 들 수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5년의 계획기간(92~96)에 제1한라관광도로(아라컨츄리—애월읍 원동구간 19.3km)와 제2한라관광도로(이시돌목장—돈내코입구, 24km)등의 도로확충계획과 대규모 지하수개발방식의 용수확충계획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초지의 내실화등의 초지조성계획, 공동목장내의 민박설치, 10개소 이상의 골프장건설, '제1차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6개 관광지구(송당, 교래, 무수천, 산천단, 돈내코, 우보악등)외에 표선면 거문오름지구를 지정하여 중산간지대의 유휴토지를 관광지화한다는 계획이다.

4. 제주도 중산간지대의 개발현황

1) 현 황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속에서 이루어진 제주도개발, 특히 중산간지대의 개발은 앞의 개발계획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 용수를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토지이용 그리고 관광개발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

후술하겠지만 중산간지대는 화산회토로 뒤덮여 있어서 광활한 초지임에도 불구하고 용수가 귀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산간개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용수개발이었다.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내도시 용수부족현상 해소책으로 어승생·구구곡·성판악등의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67년 4월 어승생수원개발공사가 착공되었고, 69년 10월 통수식을 갖게 되었다. 이후 어승생수원지에서는 하루 최대용출량 4천6천m³/일에, 생활용수 1만m³/일, 농업용수 3천m³/일등 1만3천m/일의 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한편 87년까지 개발된 지하수관정은 총 2백36공이며, 이중 중산간지대에는 2개의 지하관정으로서 서귀포시 상효동 관정에서 1천3백39m³/일, 제주시 영평동 관정에서 1천m³/일 등을 개발하였으며,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서홍동의 지하관정은 폐공되었다.

도로는 〈표1〉와 같이 중산간지대를 순환하는 중산간도로, 5·16도로, 천백도로등의 국도와 동·서부산업도로, 동·서부축산도로 등의 지방도가 확·포장되어 있어서 중산간지대의 개발가속화(사회간접자본시설로 기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산간도로의 경우 63년 범도민사업으로 개통된 후 65년 세계식량기구(W.F.P)가 무상으로 공여한 구호양곡으로 연 1백만명의 주민을 동원하여 도로폭 4m를 7m로 확장 개수하였으며, 이후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80년 11월부터 81년 12월까지 대권새마을사업으로 기존도로폭 7m를 15m로 주민들에 의해 확장되었다.

(2) 토지이용현황

중산간지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발 2백~6백m의 경사도 5~15도 내외의 토지로서 약 6만ha에 달하는 광활한 초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9천3백ha의 농경지가 있으며, 그 이외에는 개량초지(약2만ha)미개간지가 대부분 이어서 축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초지조성사업이 절실한 곳이다.

특히 제주도 축산당국이 66년 이후 지금까지 매해 역점사업으로 '초지조성사업'을 벌여오면서 축산진흥기금, 지방비등 86년까지 20년간 1백18억원을 지원하여 초지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3) 관광개발

중산간지대에는 문화관광자원(성읍민속마을), 기생화산(오름), 자연동굴(만장굴, 수산굴, 미천굴 등), 자생군락지(비자림, 팽나무, 동백나무, 녹나무 등)의 자연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특히 84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은 23만9천여평의 옛 정의현 성내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지역으로 보호·관리되고 있으며, '산굼부리'나 '만장굴'등은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제공되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85년(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된 이후)이후 중산간지대는 각종 숙박시설과 골프장등의 대형 위락시설, 승마장(14개소)이 관광개발붐을 타고 건설되었다.

이외에도 홀리데이호텔과 국제유스호스텔등의 숙박시설과 22만평의 대지위에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경마장, 그리고 기존의 오라·제주골프장과 건설중인 한라골프장등 3개소의 골프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0개소 이상의 골프장이 건설되어질 것이며, 승마장은 동·서부산업도로와 5.16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 문제점

이렇듯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중산간 개발에 있어서 화려한 겉모습의 내면에는 문제점 또한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토개발연구의 보고서에는 중산간개발의 문제점으로, '투기적 토지점유' '미개발지 또는 목초지로 방치' '풍부한 토지자원' '특이한 경관자원으로 각종 시설입지 수요증대'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바라보는 중산간지대 개발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투기적 성격이 짙은 외지인의 토지과다보유의 문제'이다.

89년 국정감사자료(표2)를 통하여 알수 있듯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체는 모두 외지대재벌이며, 이들은 중산간지대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외지인이 대부분인 기업목장현황(표3)을 보더라도 중산간 전체 면적의 1/6을 점하고 있다.

이들 기업목장은 당국의 축산진흥정책을 이용하여 중산간 유휴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축산불황등의 이유를 들며 타용도(경마장, 골프장, 생수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거나 축산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국의 막대한 지원속에서 초지개량화에 부실하여 전체 개량초지 2만5천ha중 12%인 3천ha가 불량초지로 나타났다.(실제로 성읍목장(대표 이철희)의 경우 아예 축산을 하지 않고 유휴지로 버려져 있음)

이렇듯 당국의 막대한 지원속에서 축산진흥에 이바지 하도록 했던 중산간지대의 초지조성사업은 결과적으로 볼 때 외지인들의 토지과다점유와 토지의 비효율적 활용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둘째, 당국의 중산간 토지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마을공동목장이 군유지화 되어진 후 당국에서는 타국가기관에의 무상임대, 외지인에의 투기성 유상임대를 하고 있다. 실례로서는 조천읍 선흘리의 경우 공유재산인 군유지를 반도축산개발(대표 정채덕)에 임대하여 주고 있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 선흘리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자 거절당하는등 지역주민을 외면하고 외지인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개발예정지구의 토지가 대부분 외지인 소유여서 사전정보유출을 의심케 하고 있다. 실례로 제2한라관광도로변의 경우는 주변 토지의 70%가 외지인들의 소유로 알려졌으며, 산천단개발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개발을 통해 외지인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다준 셈이다.

셋째, '환경오염의 문제'를 들 수 있다.

96년까지 10개소 이상의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맹독성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의 파괴— 주변초지와 상수원의 오염으로 인한 농·축산업의 존폐위기— 탈농화— 마을폐촌이라는 연쇄반응을 상기해 볼 수 있으며, 토지의 비효율적이용, 계층간의 위화감조성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특히 온천개발)을 통한 용수의 고갈이다. 토양적 특성상 지상용수가 부족한 중산간지대에는 필연적으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이 뒤따른다. 하지만 용수이외의 지하수, 온천개발(지하 8백~1천5백m까지 시추함)은 구좌읍 세화리, 송당리, 조천읍 함덕리, 한림읍 금악리, 남원읍 신흥리 등 중산간지대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오염된 지하수가 해안지대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 제주도 중산간지대 개발의 방향

1) 중요성

제주도의 자연구조는 전형적인 화산지대로서의 구조, 즉 투수성이 높은 화산회토로 덮여있어서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다. 그리고 지하로 스며든 빗물은 해안가에서 용출되어지고 있어서 도내의 대부분의 마을들은 이 용천수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자연조건을 결정지워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지하층의 절리구조(거북이등과 같이 균열돼 있어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됨)로 도내 해안지대 이외의 곳에서는 상수원을 구할 수 없다는데 있으며, 화산회토의 보수성의 결여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산간지대는 화산회토로서 식물체에 양분을 공급하고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한다. 즉, 중산간지대의 토양은 각종 오염물질등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표면이 오염될 경우 빗물에 섞여 지하로 침투되어 해안지대의 상수원(용천수, 지하수 등)과 결합될 것은 자명하다. 이렇기 때문에 중산간지대는 제주도의 자연구조상 주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해 주는 '댐의 상류유역'의 역할을 하고있다.

이러한 자연적 중요성 이외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천혜의 경관자원으로서의 기능과 농·축산업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지역주민들에게 중요한 부를 제공하여 주는 기능을 하고있다.

2) 방향성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지역자원들의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자원등의 지역특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는 다음 세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들 특성과 개발의 상호관계를 감안하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1) 지역자원적 요소(자연자원, 역사적 자원, 인공시설, 인적자원)

(2) 산업경제적 요소(농림수산업, 제조업, 상업, 관광, 교통 등)

(3) 사회, 생활 문화적 요소

이상의 요소를 감안하여 제주지역의 특성을 요약하면,

(1) 도서성:격절성, 환해성, 협소성

(2) 자연, 환경의 복합성:한라산—중산간—해안—바다로 이어지는 경관의 복합은 그 자체가 중요한 자원이다.

(3) 지하수 이용:지하수는 제주지역 존립의 기본 인자로서 그 함양·보전을 위한 수원림등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4) 전작의 풍토:전작—축산(초지)과 결부된 복합이용체계를 전제로 한다

(5)농경문화성:이상의 요소들에서 비롯되는 농경문화는 제주의 독자성을 형성해 주고 있다.

이상의 제 요소들을 조합해 보았을 때 중산간지대 개발에 있어서 대규모 위락시설을 비롯한 인위적인 관광시설물들을 유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여진다. 즉, 중산간지대의 자연조건상 환경오염과 지역경제의 자생능력을 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중산간지대 개발은 자연적 조건에 순응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소규모·자연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말해서 제주도의 특성—1차산업의 종사자가 54%이며, 중산간지대는 축산의 최적지임—에 맞추어 광활한 초지를 이용한 축산과 산림자원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산간지대 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관계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축산업의 최적지인 중산간지대에 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관계당국의 지원책,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인하여 도내 모든 마을공동목장이 군유지화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의 환원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70~80년대 토지투기열풍이 성행할 당시 외지인들이 대규모 기업목장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목장으로서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자 이들 목장은 황무지로 버려져 있는 실정(성읍목장)이다. 이러한 투기성 기업목장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한다.

6. 나오며

이제 제주도지역개발 특히 중산간지대 개발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제2차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성안중인 현시기에 제주도의 장래를 파국으로 몰고갈지도 모를 중산간지대의 개발은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중산간지대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가속화 해 내려는 일련의 움직임들—골프장 건설, 대규모 사파리, 숙박시설 설치계획등은 커다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David Berry는 상품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아닌 현장자원으로서의 토지를 효용가치, 기능적 가치, 심미적 가치, 위락가치, 명상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의 여섯가지로 나누고 있다. 현장자원으로서의 토지, 즉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상태로 현장에 존재하면서 직접 어떤 효용을 발생시키는 토지는 상품가치로서의 토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중산간지대 또한 '상품가치로서의 토지'보다는 훨씬 중요한 현장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중산간 지대는 인위적인 개발이 아닌 자연상태 그대로의 개발(보존)이 훨씬 바람직하며, 인위적인 개발을 하더라도 소규모의 개발이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 후 공공자원으로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면관계상 글쓴이의 양해를 얻어 각주와 참고문헌을 생략했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동연구회와 송태경 학우의 글은 3월 개강호에 발표됨을 밝힙니다.
(엮은이 씀)

표) 중산간 토지최다보유법인체

법인명	소재지	대표	면적
제동목장	조천,교래	노중열	4백62만7천평
성읍목장	표선,성읍	이철희	2백98만3천평
송당목장	구좌,송당	정규진	2백32만평
남영목장	표선,성읍	문강민	2백38만1천평
조천목장	조천,선흘	전영태	1백90만7천평

제주신문 89.9.26

표) 기업목장현황

구분 / 연도	목장수(개소)	축우(두)	목장면적(ha)
1971	9	1,011	2,063
1975	17	3,527	5,147
1977	31	6,572	9,285
1985	43	10,219	10,381

심사평

중산간개발 문제점 제시 돋보여

제주지역의 특성은 몇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우선은 古典的 특성이라 할 수 있고 隔絶性, 環海性, 狹小性 — 島嶼性이다. 물론 文明의 발달에 따라 隔絶性등은 해소되고 있지만 그 위치적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 또하나는 地域構造上(節理構造) 田作의 風土를 이루고 있으며 地形에 따라 3등분되고 있다. 즉 0~200m 海岸地帶, 200~600m 中山間地帶, 600m이상 山岳地帶의 구분이며 그 면적분포는 해안지대 1005.55㎢(55%), 중산간지대 577.0㎢(31.5%), 산악지대 246.02㎢(13.5%)가 되고 있다. 이외에 風度·石度의 風土와 화산회토의 토양적 특성을 지닌다.

이상의 自然地理的 특성의 결과 "환상과 남만의 섬"으로 찬미되면서 60年代이래 30여년동안 15차례의 개발계획이 입안·시행되면서 量과 質의 面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도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反作用—자연환경의 파괴·오염, 개발이익의 外部化등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9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른바 2次종합개발계획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中山間地帶를 觀光地域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제대신문사의 제11회 백록학술상 주제논문으로 "제주도 중산간지대 개발의 방향"(강동우 행정·4)이 참여한 것은 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姜君은 위에서 지적된 제주의 특성을 논의하고 있음은 물론 지난 개발과정에서 비롯되는 제모순점을 극명하게 제기하면서 中山間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만 case study 등에 의한 실증적인 접근이 아쉽다고 생각될 뿐이다.(학생의 신분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중산간지대에 대한 기초자료가 너무나 빈약하다. 이제부터라도 개발에 앞서 보다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사실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활발한 논의의 표적이 되어 保全의 原理가 환기되어야 할 것이다.

강경선 농경제학과 교수

백록학술상 입상자 발표

본사 주최 '제11회 백록학술상'공모에 따른 심사결과 주제논문에 산학협동연구회의 "제주도 지하수 개발의 실태와 해결방향에 관한 예비적연구"와 강동우(행정학과4)학우의 "제주도 중산간지대 개발의 방향"이, 일반논문에 송태경(어업학과3)학우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또 다른 사회—자본론(정치경제학 비판)연구"가 각각 가작으로 뽑혔다.

각 부문별 응모편수를 보면 주제논문에 2편, 일반논문에 3편이 응모했고 심사위원으로는 주제논문부문에 강경선(농업경제학과)교수와 현해남(농화학과)조교수가, 일반논문부문에 김광웅(국어국문학과)부교수, 고성준(국민윤리 교육과)교수, 박상수(경제학과)조교수가 위촉돼 심사를 했다.

시상식은 12월12일 오전 10시 본관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김형욱총장과 본사 정대연(사회학과 부교수)주간 교수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